

# HI

## 라디오서울 한국TV매거진

Jan 14, 2025 VOL.37

한국일보 전미주지사 뉴스  
- 100세 시대, 당당하고 활기차게

radioseoul1650.com 많이본 뉴스  
- LA산불로 피해 지역 한인들 대피하느라 밤새 뜯눈으로 지새

서울경제 뉴스와이드  
- 미국 우선주의, 증시 강세장 이끌 것

**응자** 전문  
**나라** 회사

주택  
응자

ak4989@gmail.com  
**213.388.5600**

**황인용 심장 / 혈관 내과**  
Inyong Hwang, M.D. FACC, RPVI, ABVM



www.HeartDoctorLA.com  
www.황인용다독심장내과.com  
3130 West Olympic Blvd,  
Suite #250, LA, CA. 90006

**(213) 528-1111**

**성민산삼한방병원**  
www.sansamsale.com



한의원박사 서영수

809 S. Hobart Blvd, L.A., CA 90005  
(진료시간 월-토 09:30am-06:30pm)

**(213)385-3304 (산삼공사)**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무료 상담**



Ye ja Kim (김예자) Lic #: 0F07964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714.773.2939 714.872.9377

**562.640.0643**

은퇴, 상속, 절세,  
401K 롤오버, 생명보험 학자금,  
재정에 대한 모든 문의와 플랜은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미래관광**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여행사  
고객만족도 1위!



**213.385.1000**

**여기요**  
Premium Korean Restaurant



**(213) 378 0333**  
**(3450 W 6th st #105, LA)**

중국 정통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음한의원**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657)325-4000**

표지모델 - 배우 박신혜

빠른 뉴스는 라디오서울, 뉴스 속보, 많은 정보, radioseoul1650.com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 유니 굿프렌드 보험

##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7979 Fax. 213-674-4383

##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 VIRGINIA OFFICE

9001 Braddock Rd. Suite 390 Springfield, VA 22151  
 Tel. 703-256-0707

## SAN DIEGO OFFICE

7655 Clairemont Mesa Blvd., Suite 308 San Diego, CA 92111  
 Tel. 213-388-7979

함께 일하실 경험있는 보험에이전트를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hr@ugfriend.com](mailto:hr@ugfriend.com)으로  
 Resum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토요일 • 7PM

PECHANGA SUMMIT 라이브 공연

티켓 구매 핫라인: 714.232.0000 또는 온라인 KoreanConcert.net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888.810.8871 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7.711.2WIN • PECHANGA.COM

남가주 와인 컨트리 테메쿨라 벨리에 있으며,  
I-15 출구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45000 Pechanga Parkway, Temecula, CA 92592

본사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도박이 가능합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800.GAMBLER.







musicplaza.com

# MUSIC PLAZA+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인기 한국스타 음반  
TV 드라마, DVD  
한국영화, 팝송  
클래식 뉴에이지 등  
각종 CD



**뮤직플라자**  
(213) 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 산불로 피해 지역 한인들 대피하느라 밤새 뜬눈

캘리포니아 산불과 이튼 파이어 등 엘에이 일원에 대형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대피하거나 대피경고령을 받고 안전부절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파이어에 이어 이튼 파이어까지 피해가 커지면서 특히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패사디나와 라카나, 글렌데일, 라크라센타 등지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거나 대피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촌으로 한인들이 밀집한 라카나 지역의 경우, 이튼 산불로 인해 7일밤부터 대피령이 발효되면서 이 지역 한인들은 대피 준비를 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라카나 주민인 ABC 회계법인 대표인 안병찬 CPA는 대피명령을 받고 7일밤부터 8일 새벽사이 가족과 함께 집을 싸 호텔로 대피했으며, 대피한 이후에도 집에 있는 귀중품을 옮기기 위해 호텔과 집을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카나, 라크라센타, 글렌데일에 산불 대피령이 발효된 상황인데 특히 라카나 지역의 경우에는 엘에이에서 산림이 많이 우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의 피해가 심각해 모든 주민들이 대피중입니다.”

오랫동안 라카나에 거주해왔다는 안병찬 CPA는 이 지역에서 산불로 대피한 것으로 이번이 두번째라며, 지금은 이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강풍까지 함께 동반되다 보니 소방국에서도 제대로 산불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으로 라카나의 경우 숨을 쉬기 힘든 정도의 수준입니다.”

라크라센타와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다수는 대피 경고령을 받고 미리 짐을 싸놓고 산불 피해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피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라크라센타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은 8일 오전 내려진 대피 경고령을 받고 황급히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들은 대피경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당황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8일 오전 브렌트 우드까지 확산되면서 브렌트 우드 지역에도 대피령 혹은 대피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난 밤부터 단전이 발생하면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모니카 류 한국어 진흥재단 이사장은 대피 경고령을 받은 상태로,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7일밤부터 8월까지 이어진 단전으로 인해 촛불과 자동차까지 활용하며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경고령을 받게되면서 계속해서 집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출퇴근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집안에 구비되어 있는



비상 및 대피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지역 한인들도 7일밤부터 정전 사태가 발생해 암흑속에서 밤을 지낸 후, 대피 경고령을 받고 짐을 싸놓은 채 8일 업데이트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변에서는 셀폰도 터지지 않아 비상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무가 신호등을 덮쳐 도로 곳곳이 차단되면서 교통이 마비된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꼼짝 못하는가 하면, 신호등이 줄줄이 고장나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 H CONTENTS

- 한국일보, 서울경제 댓글와글와글: **24**  
새해와 함께 대반전의 상황이
- 그때는 무슨 일이? 1984년 1월 **47**
- H 피플: **20**  
구두수선하며 2500만원 기부한 부부
- 이웃케어 클리닉 H닥터 칼럼: **41**  
건강검진과 함께 새해 시작하세요
- 서울경제 칼럼: **21**  
트럼프 눈치보는 美 언론?
- H 스포츠데스크: **49**  
2025년 시즌 MLB 예상 순위 TOP10
- 정재윤방송인 돈이 되는 이야기: **33**  
주식
- H 서울경제 골프: **42**  
그날 저녁식탁에서 오간 대화가 세플러를 바꿔놓았다
- 내 몸에 좋은 H 건강꿀팁: **41**  
프론
- 불뿔개 지는 이야기: **33**  
안서는 남자
- NHS 헬스 가이드: **45**  
2025년 건강한 시작을 위하여
- H 휴지통: **47**  
골프장 진상 <2>
- 성소영박사 강철멘탈클래스: **32**  
새해에는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 신혜원변호사 H 법정스토리: **27**  
확신 VS 의심
- 실버시티보험 시니어생활상식: **44**  
메디케어 보험료 어떻게 내야 하나요?

## 카렌 배스 LA시장, 엘에이 산불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심각한 비판에 직면



- 예상가능한 화재에 무방비 오히려 LAFD 예산 축소
- 시장의 불성실한 기자회견에 주민들 분노 폭발
- 캐런 배스 시장의 능력에 강한 의문 제기

### 주요 문제점 예산 삭감

배스 시장은 2024-25 회계연도에 로스앤

젤레스 소방국(LAFD) 예산을 1,760만 달러 삭감했습니다. 이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소방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부재중 화재 발생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스 시장은 가나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인프라 문제

일부 지역에서 소화전에 물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화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비판의 목소리

LA타임스 소유주 패트릭 순-시옹은 배스 시장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 시장 후보 릭 카루소는 LA를 “제3세계 국가”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배우 재커리 레비는 이번 사태를 “범죄적 과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배스 시장이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삭감, 부재중 대응 미흡, 인프라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스 시장의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이 엄중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radioseoul1650.com

H 매거진 구독 문의

**213-304-3448**



# 산불 급증에 보험사들 이미 대거 발뺌했는데... LA화재 피해보장 막막

민간 보험사 “화재 비용 너무 커져” 수년간 캘리포니아서 보장 축소  
남은 건 정부 보험뿐... ‘벼랑 끝’ 美 서부 보험 시장 중대 위기



불에 타고 있는 건물들(LA 로이터=연합뉴스)8일(현지시간) LA 팰리세이즈 지역 덮친 화재. 2025.01.09

로스앤젤레스(LA)를 덮친 대형 산불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보험사들이 이 지역에서 보험 규모마저 줄여온 터라 피해 복구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민간 보험사들은 이번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최근 수년간 급증한 화재에 따른 비용 부담 탓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아왔다.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민간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 제너럴’은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주택 및 아파트 7만2천채에 대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번 LA 산불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주택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당시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가입된 스테이트 팜의 보험 계약 중 69%가 취소됐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 줄줄이 보험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며 발을 빼는 것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현상이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미 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자 캘리포니아주 이용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이른바 ‘대탈출’이 빚어진 것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들은 25년간의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그 뒤로 주택 등에 대한 화재

보장 계약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민간 보험 회사들이 산불 발생 지역의 주택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이는 보험사들의 대탈출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주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의 많은 카운티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보험 갱신 거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거부당한 주택 소유자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인 ‘페어 플랜’(FAIR Plan)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이 보험은 민간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는 적지만 민간 보험을 찾지 못한 이들이 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페어 플랜 가입 액수는 전년 대비 61%가 늘었다.

이번 화재 피해가 집중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는 페어 플랜 가입 건수가 2024년에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85%가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주 정부 보험이 이번 LA 화재 피해를 보전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과 시스템, 인력을 갖췄는지다.

스탠퍼드대의 마이클 와라 기후 및 에너지 선임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은 이번 산

불로 인해 발생할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감정사와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페어 플랜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잉여 현금은 2억달러(약 2천912억원)이며, 페어 플랜이 가입한 재보험 액수는 25억달러(약 3조6천410억원)이다.

이러한 우려에 페어 플랜 측은 성명을 내고 “(LA 산불 피해) 보험금 청구가 이제 막 제출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페어 플랜은 보장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보험을 포함해 지급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NYT는 페어 플랜이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운영되는 민간 보험사들로부터 자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미 악화된 이 지역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쳐 결국 더 많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라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이번 화재 피해가 이미 벼랑 끝에서 있는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을 벼랑 너머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디오서울 뉴스 데스크>

## “2025년 세법 주요 변경사항”

▶제공: ABC CPAs 그룹

ABC CPAs 회계법인은 2025년 적용될 주요 세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율 구간은 2024년과 동일하게 7단계(10%, 12%, 22%, 24%, 32%, 35%, 37%)를 유지한다. 표준 공제액은 2024년 대비 전반적으로 인상되어 싱글 및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14,600에서 \$15,000로, 부부 공동신고는 \$29,200에서 \$30,000로, 세대주 신고는 \$21,900에서 \$22,50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소득 기준이 \$168,600에서 \$176,100으로 인상되며, IRA 최대 납입액은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00을 유지하고, 401(k) 기여한도는 50세 이상 가입자 기준 \$31,000으로 상향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제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이자 공제가 2025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주택 구입 및 개선 관련 대출에 대해 \$750,000까지 허용된다. 단, 2017년 12월 15일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1백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청정에너지 관련 세제혜택도 주

목할 만하다.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는 소득 제한(부부 공동신고 기준 \$300,000)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용 태양열 설비 설치 시 2025년에도 30%의 세액공제가 지속된다.

상속 증여 세 면제 한도는 \$13,990,000로 상향되어 부부의 경우 총 \$27,980,0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21%의 법인 세율이 유지되며, 연구개발비용은 미국 내 지출의 경우 5년, 해외 지출의 경우 1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3년 평균 총수입 \$29백만 미만)를 제외한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는 조정과세소득의 30%로 제한된다.

ABC CPAs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세무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 이웃케어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명의 전문의! 더 편리해진 언어서비스! 더 깊어진 진료!

이웃케어클리닉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아동 청소년과도 공감할 수 있는 강영태 전문의에게  
더욱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 건강에 대해 언어 장벽 없이, 깊이 있게 상담하세요.

남성/여성 닥터 중 편하신 의사에게 진료받으세요.



## 강영태 전문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전공의 과정 마친 후  
하와이주립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수료  
아동 청소년 환자의 일반, 성장 및 정서 발달 진료



## 제니퍼 멘히발-로페즈 전문의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료 가능한 여성 닥터



ADHD (주의력결핍 및 과다행동 장애),  
자폐증 등 성장발달에  
중요한 검사와 진료도 진행합니다.



Medi-Cal 가입자도 환영합니다.



18세 이후엔 케어 클리닉 가정주치의에게  
계속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 클리닉의 환자 지원 부서에서  
주치의 지정과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 강영태 전문의를  
아이 주치의로 지정하세요!



213-235-2800



3671 W. 6<sup>th</sup> St. Ste A,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킹슬리 형제갈비 건너편)

SCAN ME



**Kheir Clinic**  
이웃케어클리닉  
**Clínica Kheir**



## “Southern California’s Most Dilicious Bargains”

### “남가주에서 제일 맛있고 싼집”

# LA타임즈도 극찬한 **해장촌**

### 한인의 입맛뿐 아니라 주류시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랑스런 해장촌돌구이!



**WE ARE A DESIGNATED CITY OF LA LEGACY BUSINESS**



나는 아직 가격, 맛,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에서 비교할만한 음식점을 찾지 못했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다.

아이린 S. LA 거주



해장촌은 한인타운에서 가장 독특한 BBQ집!! 돌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는 최고다!!

조 L, 아케디아 거주



지금까지의 최고의 한국 BBQ집! 해장촌은 일반 갈비집보다 뛰어나다.

Sung Y., West LA 거주



All-You-Can-Eat Korean BBQ at the hip Hae Jang Chon!

LA Times Sep.16, 2009

### We only use **USDA Choice and Prime Meat**

USDA 프라임 차돌+USDA 초이스 양념갈비+USDA 초이스 생갈비+프라임 블랙 앵거스 소불고기+프라임 블랙 앵거스 매운 소불고기  
프리미엄 블랙 앵거스 허밀+매운 돼지불고기+천겹살+캐나다산 생삼겹 (두껍게 또는 얇게)+닭불고기+매운 닭불고기+쭈꾸미+새우  
오징어 불고기+막창구이+매운 소벌집양+핫도그 +계란찜+김치부침+흰밥 또는 볶음밥+된장찌개+떡보쌈+무쌈+버섯+양파+샐러드

- LUNCH : 11am~4:00pm on Weekdays, Except Holidays
- DINNER : 4:00pm to Closing Weekdays, All day on Weekends and Holidays.

**무제한도 따져보고가자!**

LUNCH **\$37<sup>99</sup>** +TAX

DINNER **\$43<sup>99</sup>** +TAX

**33** 가지 다양한 메뉴



마무리는  
기가막힌  
돌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격은 내리고, 양은 더 푸짐하게!  
**고추장양념쌈밥** 삼겹살 or 오징어  
+ 된장 찌개 **\$21<sup>99</sup>** +TAX

**해장촌 특선 런치 \$17<sup>99</sup>** +TAX

신내해장국/ 살코기 해장국  
묵은지 김치찌개

입맛 없을땐, 이거 하나면 끝!  
**열무양푼비빔밥** +된장찌개 **\$17<sup>99</sup>** +TAX

해장촌돌구이  
haejangchon.com



HaeJangChon Dolgool Restaurant

213.389.8777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수·목·일 11AM-12PM 금·토 11AM-2AM



※화요일은 쉽니다.



# 시니어 라이프 실버 테크의 새로운 물결! CES 2025에서 꿀잼 시니어 테크

CES가 이제 시니어들의 놀이 동산이 되었습니다.

올해 CES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시니어분들을 위한 테크놀로지에요!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축제가 아닌 CES, 실버 세대를 위한 따뜻한 혁신 기술들을 만나볼까요?

**외로움 싹~ 날려줄 귀요미 로봇, '로미' 등장!**

일본에서 온 깜찍이 로봇 '로미'를 소개합니다! 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이 귀요미는 무려 150가지나 되는 표정과 움직임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30곡의 레퍼토리를 가진 로미는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노래방 친구! 반려동물 못지않은 교감으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드립니다.

**우리집 만능 도우미, R2D3의 놀라운 활약**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미국의 'Open Droids'가 선보인 R2D3는 그

야말로 만능 살림꾼이에요. 키도 쑥쑥 자라나는(높이 조절 가능한)로봇 팔로 설거지부터 빨래 개기까지, 귀찮은 집안일은 이제 안녕~

특히 시연장에서 보여준 음료수 캔 따기 실력은 장인급!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확~ 줄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안경으로 더 똑똑해지세요!**

중국 Moody Holdings의 'Halliday' 스마트 글래스는 그야말로 21세기 비서님! 회의 중에 궁금한 게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시가 싹싹 답변해드립니다. 회의록도 알아서 잡잡, 필요한 정보는 눈앞에 싹- 보여드리죠!

**1분이면 OK! 초간단 건강 체크**

캐나다 기업 Ellie의 신박한 발명품! 코로나 검사처럼 간단하게 입에 물고 있으면 호르몬 수치를 체크해주는 키트가 등장했어요. 전용 앱으로 바로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니,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체크하세요!

**우리 집이 똑똑해진다!**

미국 소비자 80%가 인정한 '에이 자-테크'의 강자, 스마트 홈 기술! 이

제 집 안 곳곳이 우리 시니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마치며...**

이번 CES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젊은이들만을 위한 기술

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

우리의 소중한 시니어분들을 위한 따뜻한 기술의 향연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뉴스 데스크>

## 한인타운의 잊혀진 이웃 : 월셔와 호바트의 노숙 여성



월셔와 호바트 교차로의 버스정류장. 3년째 이곳을 집 삼아 살아가는 한 노숙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띈다. 쓰레기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에게 누군가 다가가면 날카로운 고함소리가 거리를 울린다.

**방치된 정신건강 문제**

이 여성은 명백한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때마다 격한 반응을 보이며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노숙인들이 겪는 전형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장기 노숙 생활로 인한 자포자기와 좌절,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스템의 실패**

LA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6]. 특히 한인타운 지역의 노숙자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7가

와 호바트 근처에만 20여 개의 텐트가 밀집해 있는 실정이다.

**해결의 걸림돌**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치료, 약물 관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7],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런 복합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급한 대책 필요성**

겨울철 한파는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치명적이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도움을 거부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아웃리치 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신보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통합적 접근만이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디오서울 뉴스 데스크>

◀ The image of an elderly woman living in a cold bus stop for several years, contrasted with the image of the cathedral behind her.



# 맨하탄 교통혼잡세 마침내 시행

MTA, 5일 0시 기해 본격 시작...60가 남단 진입차량 대상  
주간시간대 승용차 9달러...차량당 하루 한번 부과



재노 리버 MTA회장이 맨하탄 웨스트 61~62스트리트 사이 브로드웨이 선상의 가로등에 교통혼잡세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MTA 제공]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의 도심 상업지구엔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가 마침내 시행에 돌입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5일 0시를 기해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가 본격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미 전역에서 교통혼잡세가 도입된 것은 뉴욕시가 처음이다.

MTA는 교통혼잡세로 시행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되는 교통혼잡세는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의 경우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9달러 ▲소형 트럭 및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21달러60센트 등이 각각 부과된다.

저소득층 차량은 매달 10회까지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야간시간대(평일 오후 9시~오전 5시, 주말 오후 9시~오전 9시)는 통행료가 75% 낮아져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2달러25센트 ▲소형 트럭 및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5달러40센트

## ■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

분류	주간시간대	야간시간대
승용차	\$9.00	\$2.25
소형 트럭 / 소형 버스	\$14.40	\$3.60
대형 트럭 / 대형 버스	\$21.60	\$5.40
택시 할증료(승차당)	\$0.75	\$0.75
우버/리프트 할증료(승차당)	\$1.50	\$1.50

가 부과된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주간시간대 ▲승용차 13달러50센트 ▲소형 트럭 및 버스 21달러6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32달러40센트, 야간시간대는 75% 할인된 ▲승용차 3달러30센트 ▲소형 트럭 및 버스 5달러4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8달러10센트가 청구된다.

교통혼잡세는 차량당 하루 한번 부과된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에 있는 도로 곳곳에 설치된 판독기 등을 통해 진입 차량을 식별해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택시와 공유 차량 등은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는 방식으로 혼잡세가 부과된다.

엘로우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75센트, 우버 및 리프트 등 공유 차량은 승차당 할증료가 1달러50센트이다. 택시 등에 부과되는 할증료는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 모두 동일하다.

이와함께 주간시간대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탄을 연결하

는 휴캐리터널, 퀸즈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미드타운터널 이용자의 경우 통행료 크레딧이 주어진다. 승용차는 3달러, 모터사이클 1달러40센트, 소형 트럭 및 버스 7달러2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12달러 등의 감면이 제공된다. 야간시간대는 요금 크레딧이 없다.

아울러 응급 차량이나 학교 버스 등은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작된 5일 정오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혼잡세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교통혼잡세 시행 첫날인 5일 오전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 교통량이 평소보다는 덜했다고 전했다.

이날 혼잡세 시행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막판까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장고 끝에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혼잡세 시행 일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저지주정부는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 곧바로 긴급 항소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4일 기각되면서 혼잡세 시행을 가로 막을 법적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혼잡세 시행 중단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혼잡세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현실화 여부에 주목된다. 혼잡세 반대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이크 로울러(공화), 조시 갓하이머(민주) 등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하원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혼잡세 시행을 막을 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과 동시에 조지워싱턴브릿지와 링컨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도 이날 일제히 올랐다. 승용차 기준 이지패스 결제 통행료는 기존보다 68센트 올라 피크시간대 16달러60센트가 부과된다. 오프피크 시간대 통행료는 14달러60센트가 청구된다.

<서한서 기자>

## 교통혼잡세 피하려는 꼼수 운전자 단속한다



뉴욕시가 교통혼잡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 부리는 가짜 차량 번호판 부착 운전자 대상 단속 규정을 발표했다.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교통국은 7일 번호판 인식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물질을 번호판에 부착한 차량에 대해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단속 규정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판은 지면에서 12~48인치 떨어진 높이로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단속 대상은 ▶ 번호판을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로 덮은 차량 ▶ 차량 제조사, 색상, 차량식별번호(VIN), 번호판, 등록 및 인스펙션 스티커를 가리는 커버를 부착한 차량 ▶ 번호판 인식 방해를 위해 번호판의 숫자와 알파벳 인식을 가리기 위해 왜곡된 불법 이미지를 부착거나 특정 재료를 부착한 차량 등이다.

한편, 뉴욕시는 내달 6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고 규정 시행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주 한국일보 10개의 지사를 통해 매일 게재되는 뉴스 중 어느 지역에 살든 공감할 수 있는 소식, 정보와 각 지역의 한인사회 뉴스를 뽑아서 4 페이지에 걸쳐 게재합니다. 지역별, 지사 별 더 상세한 뉴스와 정보는 koreatimes.com 을 보십시오.”

# “100세 시대, 당당하고 활기차게...”

이제 100세 시대에서 고령사회의 새로운 풍속도가 펼쳐지고 있다. 활기찬 60대와 70대, 그 이상의 80대 나이에 은퇴해 노후를 즐기기보다 당당하게 일하며 활기가 넘친다. 이전의 직장 생활이나 전문직 활동을 마치고, 새롭게 재취업해 ‘제2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노인’이라 불리기보다는 ‘새로 맞이한 중년’이라고 불리길 원한다. 이른바 ‘新중년’ 시대다. ‘액티브 시니어’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시니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100세 시대’에 제2막 인생의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 ▶ 인생 2막 도전 실천 ‘新중년들’

### ◆ 퇴직→재취업→은퇴→다시 취업한 간호사 정송자 씨



“80세에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존스홉킨스 대학병원과 메드스타 종합병원에서 30년 이상 간호사로 재직했던 정송자(80, 사진) 씨

자들을 위해 간호사로 복귀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어시스턴트 리빙에서 가장 노장 간호사로 경험이 많은 정송자 씨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만 허락한다면,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고 내 존재의 의미도 느낄 수 있다”며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는데 한인 노인들이 한국어 하는 간호사라고 반기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친숙하게 대할 때 도움을 주면서 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점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80대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나이가 들어 활기 있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축적되면서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많다”며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재취업에 적극 도전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 박춘근 씨, 은퇴 후 선교사·시큐리티 가드로



“무료한 삶, 활기도 건강도 되찾았죠”  
 앤아rlen델카운티 하노버에 거주하는 박춘근(80, 사진) 씨는 퇴직 후 시니어 선교사로 임명받아 봉사도 하고, 시큐리티 가드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큐리티 가드 활동으로 퇴직 후 삶에 변화가 생겼다.

교육원 교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또 저녁과 늦은 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시큐리티 가드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퇴직 전보다 더 신나는 삶을 살고 있다.

박춘근 씨는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이었던 직장이 사라졌지만, 선교사, 시큐리티 가드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란 걸 확인받고 있다”며 “퇴직 후 남들처럼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해보았으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무료함이 밀려왔는데, 다시 일하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지겨울 틈이 없어 건강에도 좋고 용돈도 벌 수 있어서 매우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후 5시에서 새벽 1시까지 시큐리티 가드로 병원, 정부아파트, 학교 등을 순찰 돈다”며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라며 미소를 지었다.

### ◆ 교편 잡고 노인 액티비티 강사로 뛰는 김정자 씨



“7-80대도 성장할 땐 늙지 않아”  
 한국에서 교편을 잡으며 학생을 가르쳤던 김정자(74) 씨는 40대 후반부터 70세가 넘은 현재까지 20여 년간 너싱홈,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담당하는 액티비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자 씨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 신학을 공부하게 됐던 것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너싱홈에서 일을 시작한 4, 50대에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한인 병동에서 매일 예배와 찬양, 체조 및 운동 등으로 어르신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보내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까지 든다”며 “꾸준한 탐구심을 갖고 공부하며 사명감을 갖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7-80대도 성장할 땐 늙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100세 시대인 만큼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다 멋진 노년의 삶을 즐기면서 파이팅합시다”고 말했다.

### ◆ 노인아파트 풀타임 한식 요리사 재취업 70대 수지 유 씨



“은퇴 후 막막했던 삶, 이젠 활기가 넘쳐요”

1982년 도미해 남편과 함께 캐리아웃, 스낵바, 아이스크림 가게, 델리 등 각종 요식업을 수십년 동안 운영하던 수지 유(72, 사진) 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업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유 씨는 “70대에 은퇴할 생각도 있었지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올해 한국일보에 한인노인아파트 골든리빙에서 한식 요리사를 찾는다라는 광고를 보고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용기를

내서 이력서를 내고 도전했다”고 밝혔다. 풀타임 한식 요리사로 취직한 유 씨는 “한식 요리’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며 “날마다 할 일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아침부터 일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상에 활기가 넘쳐나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일까”라며 “바쁘고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웃음을 지었다.



# In Washington DC

## 새해 폭설, 우리 동네 얼마나 내렸나

▶ 버크 9.6·포토맥 8.3...캘버트 12.2인치



6일 오전 버지니아 센터빌 지역이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다.

6일 워싱턴 지역에 눈이 얼마나 내렸을까? 한마디로 오랜만에 기록적인 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설량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워싱턴 DC 인근에는 평균 8인치의 눈이 내려, 2022년 이후 가장 큰 눈으로 기록됐다. DC에는 7.2인치의 눈이 내린 것으로 보고됐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

하는 버지니아 버크에는 9.6인치의 눈이 내려 다른 지역보다 많은 눈이 쌓였다. 또한 헨던은 6.1인치, 샌틸리 7.8인치, 페어팩스 8인치, 센터빌 9인치, 페어팩스 스테이션 9.2인치, 웨스트 스프링필드 9.3인치, 로턴 9.5인치, 뉴잉턴에는 10인치의 눈이 각각 내렸다. 알링턴 카운티는 9.3인치, 알렉산

드리아 8.0인치, 폴스처치 8.2인치, 매나세스 시티 11인치, 매나세스파크 8.2인치, 프레드릭 카운티 5.6인치, 라우든 카운티 7.6인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10.5인치, 세넬도어 카운티 7.0인치, 스팟실베이니아 카운티 6.7인치, 스탠포드 카운티 9.1인치, 워렌 카운티 8.5인치, 컬페퍼 카운티에는 9.8인치가 쌓였다. 메릴랜드에서는 캘버트 카운티에 가장 많은 12.2인치의 눈이 내렸으며, 앤 아룬델 카운티는 10.3인치, 찰스 카운티는 10.1인치로 많은 눈이 쌓였다. 볼티모어 카운티에는 7.7인치, 캐롤 카운티 5.5인치, 찰스 카운티 10.1인치, 프레드릭 카운티 6.5인치, 하워드 카운티 7.8인치, 몽고메리 카운티 8.3인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8.5인치,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8.3인치의 눈이 왔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엘리콧시티는 6.5인치, 락빌 7.2인치, 포토맥은 8.3인치의 눈이 내린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폭설은 지역에 따라 강설량의 차이가 컸으며, 특히 북버지니아에 많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화당 하딩 후보, VA 주 상원 보궐선거 출마

버지니아 주 상원 32지구(라우든 카운티) 보궐선거가 오는 7일(화)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공화당 투메이 하딩(Tumay Harding·사진) 후보가 지난달 30일 본보를 방문했다. 하딩 후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산주의를 피해 미국에 온 이민자의 딸로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조지메이슨대를 졸업하고 프린스 윌

리엄·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보답으로 출마를 결심했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세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버지니아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원 기자>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1년에 10% 벌금** ◆ 파트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

점이하인 경우 본인의 택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 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 518	\$ 285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 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 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친절히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공인 김예자 에이전트. 6400643@gmail.com

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 자격이 주어 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큰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 1,882	\$ 2,555
Asset Limit	\$ 17,220	\$ 34,360

김예자 에이전트(Kim Yeja, Lic #OF07964)는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의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Ye ja Kim(김예자)**  
Lic # : OF07964  
**562.640.0643**  
**714.773.2939**  
**714.872.9377**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 수입원





# 조선갈비

또아리 냉면

**OPEN HOUR**

매주 화요일  
 쉽니다

**월요일 - 일요일 (주 6일 OPEN)**  
**오전 11시 - 오후 10시**

**TO GO & Delivery 서비스 해드립니다**

딜리버리 Charge 가 있으며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런치 메뉴**

갈비 닭불고기 연어구이 우거지탕 비빔밥 김치찌개 육개장 떡국  
 불고기 돼지불고기 갈비탕 따로국밥 된장찌개 알찌개 만두국 떡만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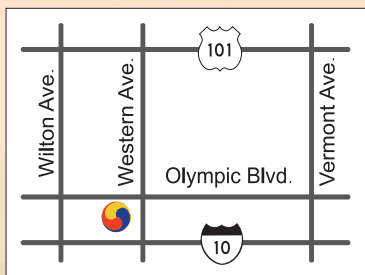
**• 디너 메뉴**

조선갈비 (프라임)	칠리안	갈비찜	생선전	조선전골
조선갈비 (초이스)	시배스	갈치조림	잡채	해물전골
갈비 주물럭	연어구이	은대구조림	두부전	곰창전골
소불고기	조기구이	새우전	물만두	은대구매운탕
닭, 돼지불고기	이면수	해물파전	홍어회무침	우럭매운탕



Chosun Galbee Restaurant

3330 W. Olympic Bl., L.A., CA 90019



**직원 모집**

- 1) 캐시어 2) 주방 쿡 하실 분
- 3) 웨이트리스 4) 매니저

\* 유경험자 환영 \*

**(323) 734-3807**

**323·734·3330**

**323·737·3332**

[www.chosungalbee.com](http://www.chosungalbee.com)



# “미국 우선주의, 증시 강세장 이끌 것… 투자자 61% 트럼프 2기도 상승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미 증시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올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은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며 미 증시와 달러화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18~31일 5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1%가 올해 S&P 500 지수가 작년 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올해 말 S&P 500 지수가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29%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점친 시각은 10%였다.

S&P 500 지수는 2023년 24.2% 오른 데 이어 지난해 23.3% 상승한 바 있다. 2년간 상승률이 58%에 달한다.

미 달러화에 대한 예상도 51%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언급하며 달러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7%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달러 가치를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2%는 달러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선 57%가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협으로 작년 말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43%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올해 전기차배터리 전년比 19% 저렴해질 것”

kWh당 111달러→90달러로 19%↓  
26년 82달러까지 ↓ 23년比 반토막  
수요 둔화에 리튬 공급 과잉이 원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가정용 배터리 충전소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전기차 배터리의 세계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111달러에서 90달러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요 약세와 과잉 생산, 다양한 배터리 기술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배터리 가격의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은 지난해 말 kWh당 111달러에서 약 19% 하락해 90달러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kWh당 8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2023년 평균 가격이 kWh당 149달러였던 점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나는 셈이다. 이때쯤이면 미국에서 순수전기차의 가격이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서는 관

측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니컬 반다리 분석가는 “기술 혁신과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하락이 배터리 가격 내림세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출시된 많은 배터리 신제품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에너지 밀도는 약 30% 높은 반면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의 경우 공급이 호주·아프리카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2025년~2026년까지 12~2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2026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전년 대비 15~17% 감소할 전망이다. 다이와캐피털마켓의 분석가인 데니스 입은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의 수요 증가율도 2023년 42%에서 2026년

31~34%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리튬 가격은 공급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일부 주요 업체들의 생산 중단만이 리튬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감소 계획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기차 및 ESS 배터리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확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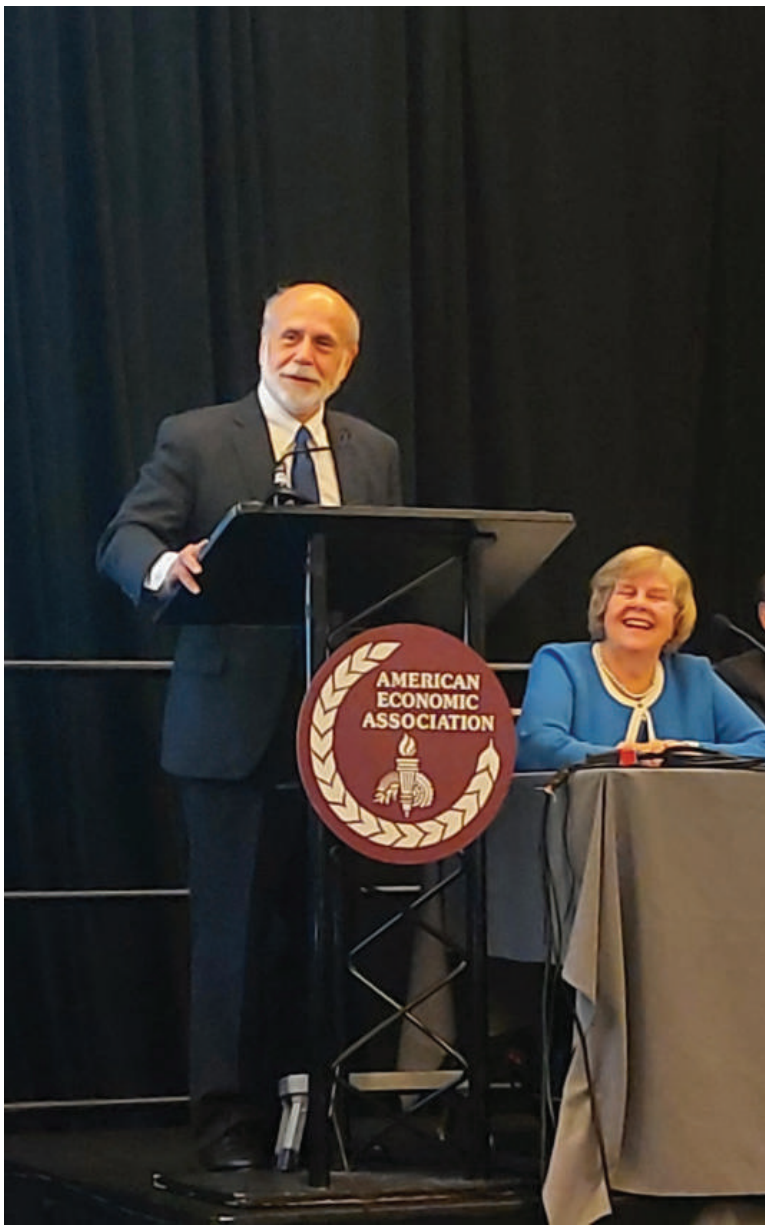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곳곳에서 약 8500만 대 가량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판매량의 58%를 중국이 차지할 전망이다.



# 버냉키

## “물가 2% 목표제, 연준 독립성 지켜”

■ 2025 전미경제학회 폐막  
 “외압 없이 통화정책 결정 가능”  
 “경제학에 큰 기여” 시 낙관론  
 “인플레 4%넘으면 가파른 상승”  
 포이티 교수 “기대치 억제해야”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홍록 특파원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시를 통한 경제학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점쳤다. 아울러 그는 현재로서는 ‘2% 물가 목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물가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냉키 전 의장은 전미경제학회(AEA) 마지막 날인 5일(현지 시간) “시를 활용하면 경제학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복잡한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현실

에 잘 맞는 경제학 모델이 머지않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가 고소득 직업을 위협한다는 비판론과 세계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버냉키 전 의장이 경제학 연구에 시가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그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봤다면 이해하겠지만 시를 통해 훨씬 정교하고 정보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시는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엄

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언은 전미경제학회가 버냉키 전 의장의 경제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특별 헌정 세션에서 나왔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12년 연준 재임 당시 공식 도입한 ‘인플레이션 2% 목표제’와 관련한 질문에 “제도 도입은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연준이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정치인들이 다른 통화정책을 요구하더라도 연준의 목표와 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되면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나쁜 일”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0(제로)’로 낮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 물가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적 외에도 필요할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적절한 절충안”이라고 답해 일축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공공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경제학도의 질문에 “기존의 연구(paper)에서 무언가를 찾아 더하려 하지 말고 현실 세계(real world)에서 찾으라”

### 2% 인플레이션 목표제도

내용	2%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통화정책 시행
목적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 물가 안정, 금리인하 여력 확보
도입 국가	미국, 일본, 한국, ECB 회원국 등 약 60개국
미국 도입	2008년 비공식 활용, 2012년 공식화

자료: 한국은행, 가디언, 외신 종합

며 “이론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몰입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지막까지 인플레이션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올리버 포이티 텍사스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4%를 넘어가면 상승세가 가팔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포이티 교수는 “소비자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임계치가 존재하며 이는 4%”라며 “임계치를 초과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포이티 교수는 “비둘기파 정책에서는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진입하는 빈도가 찾아지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매파적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김홍록 특파원>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중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위한 헌정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홍록 특파원



# 전국민이 유튜브 '삼매경'... 계엄 후 구독자 2050% 증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보수 단체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12·3 계엄 관련 유튜브 채널 인기폭발  
진보·보수 채널 모두 구독·조회수 폭증  
박선원TV 구독자 2050% 증가하기도  
유튜브 통한 가짜뉴스와 선동 주의해야  
“시민들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수단”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유튜브 및 정치인들의 인터넷 방송 채널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계엄 후폭풍을 주목하는 가운데 정치인, 정치 유튜브들이 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계엄 후 탄핵 정국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보수 진영 모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유튜브 채널들의 영상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폭증했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

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채널 구독자는 지난해 12월 3일 이전 2만여 명에서 이달 6일 기준 43만여 명(2050%)으로 늘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채널에 진입하는 시청자도 비상계엄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의원 24만여 명(800%), 김병주 의

원 22만여 명(104.76%), 추미애 의원 9만여 명(47.36%), 이재명 대표가 8만여 명(7.47%) 증가했다. 조국 혁신당은 1만 5000여 명(15.78%) 늘었다.

국회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제외한 구독자 수 상위 5개의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을 살펴본 결과 3일 이후 조회 수가 총 3억 2530만 9143건 증가하기도 했다. 구독자 수가 기존보다 10% 이상 증가한 채널 또한 3개나 됐다.

진보 채널 유입자 수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보는 구독자도 늘었다. 이날 기준 구독자 수 상위 5개 채널의 전체 구독자는 660만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3만여 명(8.03%)이 12·3 비상계엄 이후 신규로 유입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31) 씨는 “저마다 정치 성향은 다르겠지만 혼란 속 해답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퍼지는 등 정치 선동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쇠퇴하고 본인 맞춤형 미디어가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 이런 유튜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도 “과거 진보 진영에서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보수 진영의 우경화가 두드러지며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민들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카터 100세 장수에...“부고 쓴 언론인이 먼저 사망”

지난해 말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고 기사를 언론사에서 퇴적하거나 이미 사망한 기자들이 써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관행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타계에 대비해 미리 책임 중 업적 등을 담은 부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 카터 전 대통령이 장수하면서 십수 년 전 작성된 부고 기사가 송고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9일 내보낸 카터 전 대통령 부고 기사에는 로이 리드 기사가 현 백악관 담당 기자와 함께 작성자로 표기됐다. 리드는 조지아를 비롯해 미국 남부 지역을 담당했던 기자로 2017년 사망했다.

지난해 말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고 기사를 언론사에서 퇴적하거나 이미 사망한 기자들이 써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관행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타계에 대비해 미리 책임 중 업적 등을 담은 부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 카터 전 대통령이 장수하면서 십수 년 전 작성된 부고 기사가 송고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9일 내보낸 카터 전 대통령 부고 기사에는 로이 리드 기사가 현 백악관 담당 기자와 함께 작성자로 표기됐다. 리드는 조지아를 비롯해 미국 남부 지역을 담당했던 기자로 2017년 사망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53年  
 健康과 웃음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2025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3년 금강안경이  
 고객에게 드리는  
**행복**

가장 맑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일미리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53년 한결같은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안경을 구입 하기전 **꼼꼼히** 따져 보셨습니까?

- 첨단장비를 갖추고 그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진이 있는가?
- 얼마나 오랜경험을 갖춘 곳 인가?
- 모든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가?
- 서비스와 워런티는 철저히 보증하는가?
- 가격은 저렴한가?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의 유능한 검안의를 만나보십시오

**금강안경 검안과**

금강안경은 고객에게 절대 NO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검안의 *Michelle Kim* O.D.



BVLGARI



OLIVER PEOPLES

LINDBERGG

BARTON PERREIRA



DITA

THOM BROWNE

TOM FORD



CLAYTON FRANKLIN

BALENCIAGA



LA점 (로데오 갤러리아) 213.384.1001  
 833 S. Western Ave. #2, L.A., CA 90005 (일요일은 쉽니다)

가든그로브점 (H마트 몰 내) 714.530.1001  
 8901 Garden Grove Bl. G.G., CA 92844 (일요일은 쉽니다)





**용자  
나라**

# 라디오서울과 용자나라가 스타벅스 커피를 줍니다!

## 이벤트 대상

라디오서울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분!

## 이벤트 내용

- 월별, 스페셜 이벤트 등 자동 응모 및 선물 기회
- 오프라인 행사 사전 공지 및 이벤트 자동 응모
- 연말결산 이벤트 참여 및 선물 증정



라디오서울 **앱(APP)**과 **RADIOSEOUL1650.COM**  
대폭 강화된 뉴스, 콘텐츠 사이트로 재 탄생!  
**주택용자전문 '용자나라'협찬**  
라디오서울 연중기획 이벤트  
매달 **50명** 추첨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라디오서울**  
RADIO SEOUL



## 트럼프, 그린란드 차지하기위해 무력 사용 배제 안해



(사진 - 의외로 가까운 그린란드)

독자 1: 끔찍한 소리네.... 아무리 탐이나도 무력은 안되지..  
 트럼프: ㅎㅎ 말이 그렇다는거죠. 일단 겁을 좀 줘야... ㅎㅎ  
 독자 2: 근데.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뭐가 있길래....  
 트럼프: 석유, 가스, 구리, 철, 아연, 백금 등등 노다지 ㅎㅎ  
 독자 1: 그런데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도 못할텐데요?  
 트럼프: 지구온난화로 인해 요즘에 살만하데요  
 독자 2: 그러네.. 돈주고 사면 안될까?  
 알래스카 처럼?  
 (H매거진 -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이 러시아에 720만달러에 매입.  
 현재 시세로는 약 16억달러. "그야말로 껌값에 샀다")

## 중국해커들, 미국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진 - 중국해커 해킹모습)

### “미국내 이동통신사 대부분 해킹피해 by 중국”

독자 1: 피해 통신사는 어디 어디니까?  
 정부: 버라이즌, AT&T, T모빌 등 거의 대부분입니다  
 독자 2: 그럼, 우리가 해야할 일은요?  
 정부: (1)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계정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즉시 바꿀것.  
 (2) 은행계좌에 들어가 피해여부 확인할것  
 독자 3: 당장 확인해봐야지...

## K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 누르고 미국내 1위



(사진 - 뉴욕 한국화장품 매장내 인파)

### “미국내 외국화장품 수입액 한국제품 1위 등극”

한인여성: 프랑스화장품은 비싸서 한국제품 써왔는데 한국화장품이 더 인기라구요?  
 미국여성 A: 프랑스 화장품은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요 이름값때문에 거품이 많이 낄듯.....  
 미국여성 B: 맞아요 나도 최근에 한국화장품으로 바뀌었어요 착한가격에 품질도 만족합니다~~  
 한인여성: 평생 한국화장품만 사용했는데... 그래서 내가 동안인가? ㅎㅎ 최~강 동안. 짹짹 짹짹

## LA통합교육구,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사진 -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들)

### “LA 초.중.고교에서 교내 휴대폰 금지입니다”

학부모 1: 거참 잘됐네. 애들이 학교에서 전화기땀에 공부에 방해되니..  
 학생 1: 여기가 북한인가요?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구요??  
 선생님: (이제 수업시간에 훨씬 가르치기 쉬워지겠구먼..)  
 학부모 2: 갑자기 급한일이나 비상상황시에는 문제될듯...  
 교육구: 등교직후 학교에서 보관하다 비상상황 발생시 돌려줍니다  
 한 모씨: 수업시간에 여선생님 몰래 찍는 나쁜X들 없어지겠군 ㅎㅎ

송봉후 앵커

YouTube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라디오서울 AM1650 아침 6시 <스토리뉴스> 방송  
 저녁 6시 <뉴스 포커스> 방송





# 18년간 구두수선비로 2500만원 기부한 부부 KT희망나눔인상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희망나눔인상'을 수상한 김주술(왼쪽), 최영심 부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T그룹희망나눔재단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으로 구두 수선비를 모아 나눔을 실천해 온 김주술·최영심씨 부부를 공동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나눔인상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제

정한 상이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구둑방 '신세계 구두수선'을 운영중인 부부는 구두 수선비를 받을 때마다 10%씩 돼지저금통에 모아 2006년부터 지난 18년간 2500만원을 기부했다. 부부는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시절 사업 실패를 겪고 생계를 위해 구두수선을 시작했다. 2평 남짓한

조립식 건물의 구둑방에서 부부는 현재 월 150만~200만원 가량을 벌고 있다. 부부는 구두 수선비를 받을 때마다 수선비의 10%를 돼지저금통에 넣고 있다. 부부의 선행을 돕기 위해 손님이 수선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거나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부부는 말했다. 저금통이

## 김주술·최영심씨 부부 공동선정 구두수선비 10%씩 모아

배가 부르면 부부는 이를 그대로 가져가 광주시 동구청에 기부한다.

김씨는 전남 광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로 매일 5시 동네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월 10만원의 수입이지만 김씨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 최씨도 건물을 청소하며 월 12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김씨는 한 때 구두 제작 기술로

제화점을 열어 큰 돈을 벌었고, 최씨는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나눔이 더 행복하다고 부부는 말했다. 부부는 “그간 기부를 통해 나눔의 행복을 알게 돼 새로운 삶을 얻은 느낌이 든다”면서 “나눔은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희망나눔인상'을 수상한 김주술(왼쪽)·최영심씨 부부. 사진 제공=KT그룹희망나눔재단

www.midwiltshirehealth.com

**MW**  
**중앙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 양로병원  
한인 전문 물리, 작업, 언어치료사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상주, 한인 의사 대기!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Admissions Coordinator Director of Social Services

Cell : (213) 483-9921 Fax : (213) 483-3606  
676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57

차 사고엔, 차 변호사  
**PERSONAL INJURY**

레몬법엔, 차 변호사  
**LEMON LAW**

**ALEX CHA**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351.3513  
info@alexchalaw.com

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과 크렌서  
**323-954-1020**



# 트럼프 눈치보는 美 언론?



■ 유진 로빈슨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이 도통 믿기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공세는 이미 시작됐다. 그렇다고 언론인들이 겁부터 집어 먹어선 안된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벌이지 이미 예고했다. 지난주 그는 “언론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의 언론은 우리의 선거시스템만큼이나 부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공정한 언론’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공정이란 길들여지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공격은 주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ABC뉴스는 트럼프가 조지 스테파노풀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1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스테파노풀러스는 자신이 사회를 맡은 ABC 뉴스 프로그램에서 트럼프와 진 캐롤 사이에 진행중인 성추행 재판을 언급하며 트럼프에게 강간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트럼프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만약 이 문제로 재판까지 갔다면 ABC방송이 승소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하급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트럼프는 거의 틀림없이 자신의 우군으로 가득찬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은 공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언론인들을 폭넓게 보호해 온 오랜 관행을 약화시키려 했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는 디모인 레지스터지와 존경받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앤 셸처를 고소했다.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레지스터스가 카멀라 해리스가 아이오와주에서 우세를 보인다는 셸처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는 이유에서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는 13포인트 차로 아이오와주를 손에 넣었다.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들은 셸처의 빛나간 조사가 소비자 우롱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풀리처상위원회를 상대로 2022년 제기한 ‘암시적 명예훼손’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풀리처상위원회가 2018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를 전국 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당시 양대 전국지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및 뒤이어 출범한 새 행정부와 모스크바의 관계를 파헤쳐 풀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 사기극’이 신빙성을 잃었다며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수여된 상이 취소돼야 한다고 핏대를 올린다.

그동안 트럼프의 목표는 크고 강력한 기관들이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풍부한 재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기관들 혹은 개별 언론인들에게는 부유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 해도 여기에 맞설 경제적 능력이 없다. 게다가 트럼프가 취임하면 아마도 위협 수위는 급상승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지명한 캐시 파텔은 “조 바이든이 선거를 조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언론인들을 추적할 것”이라며 언론매체를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다.

정부가 언론인들에게 취재원 공개

를 강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등 이들에게 추가 보호막을 제공하는 언론법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공화당은 언론법안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 법안은 상원에서 발이 묶였다. 언론법은 지금도 상원에 계류 중이다.

1933년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유진 메이어는 신문을 위한 7개의 지침을 내놓았는데 그중 첫째가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진실을 말하라’이다. 설사 트럼프가 우리를 ‘민중의 적’으로 매도하고 그의 정적들마저 우리를 비겁자 혹은 부역자라 부른다 해도 언론은 진실을 지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것이 사실과

거짓 사이의 일종의 상상적인 중간 지점을 찾는 논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주 인용되는 워싱턴포스트의 팩트 체커 칼럼은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중 쏟아낸 3만573건의 ‘거짓 혹은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기록했다. 이로 미뤄볼 때 2차 집권기에도 언론은 트럼프의 기록을 수도 없이 수정해야 하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같은 분노가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 언론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언론은 대통령 역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야 한다.





# 투자비자의 자금출처



이경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JD 법학박사)
-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Intern & Extenship)
- Asian Human Services
-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 회원

투자비자 (E-2)를 신청하려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의 자금을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가 많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에 대해 정리하였다.

## 1. 부모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을 보조해 준 부모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비자 신청 서류에는 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차후에 투자자가 투자비자나 신분을 연장할때 차용증서에 의거하여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은 내역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이 경

우를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게 되면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된다.

## 2. 집을 여러번 옮겨 자금을 마련했는데

가능하지만 여러번 옮길수록 서류준비가 복잡해진다. 집을 장만했을 때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약정서, 그리고 선금/중도금/잔금이 이체된 기록까지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언제 얼마를 주고 샀으며 구입 당시에 초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 3.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도 되는지

가능하다. 하지만 빌려 준 사람들이 이 자금을 마련한 출처를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서로간에 어떤 관계인지도 설명되어야 하고 차용증서도 작성해야 한다.

## 4.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소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직장을 다녔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면 된다. 그동안의 소득이 투자금보다 많다면 이 소득만으로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득이 많았다 하더라도 잔고가 없다가 갑자기 돈이 통장



에 입금되게 되면 이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은 자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 5. 미국내 지인이 투자금을 증여한다는데

지인이 투자금을 대신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때는 지인의 자금출처가 필요하다. 지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거나 직장을 다닌 경우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보여 줄 수 있다. 이때는 지인으로부터 증여 편지를 받아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이며 왜 무상 증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6. 투자금이 제 3국에 있는데

가능하다. 투자금이 한국에서만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홍콩 구좌에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이용해도 된다. 다만 홍콩에서 이 돈

을 어떻게 장만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7.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가능하지만 주식 경로가 너무 복잡하면 자금출처를 증명하기 힘들다. 또한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 경

우가 가장 복잡한 자금 출처이다. 하지만 자금 출처가 100%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모든 경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민국을 상식선에서 설득할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213) 385-4646  
imin@iminus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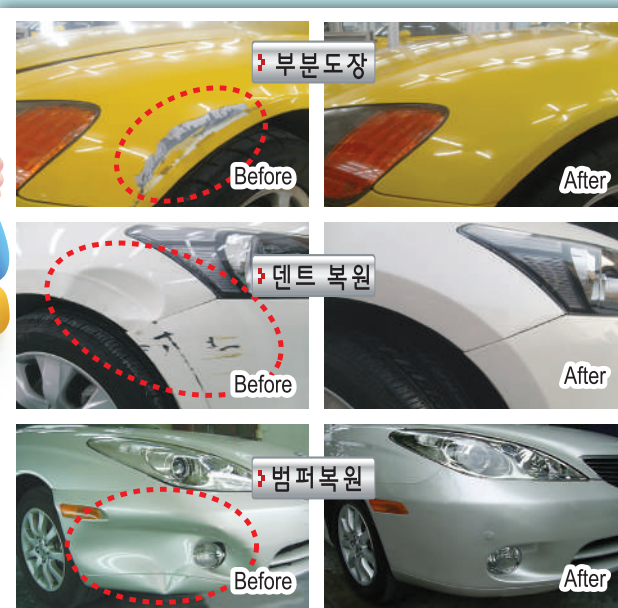


# 자동차 흠집제거전문 덴트웨이

**최저(低) 가격+최고(高) 품질**  
그것도 단 하루만에 끝내드립니다.

### 각종 보험처리 환영

- 일반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 서비스 평생 보증
- 무료견적 서비스
- 최상의 복원 품질보장
- 최고급 재료 사용
- 1Day 수리 완료



32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월~금 / 8:00AM - 6:00PM ◆토 / 8:00AM - 12:00PM

Tel. 213-383-7233 (칠이삼삼)





가격만족! 품질만족!  
온가족이 행복한 쇼핑!

#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온라인으로도  
만나보세요!  
hswus.com



## 광동제약 경옥고 스틱 30P

1963년 광동제약 창업품목 무병장수 경옥고! 4가지 약재로 120시간을 달여 만든 귀한분유인 한제품입니다. **혈액순환 및 만성피로 증후군에 특효!** 휴대하기 간편한 날개 스틱포장으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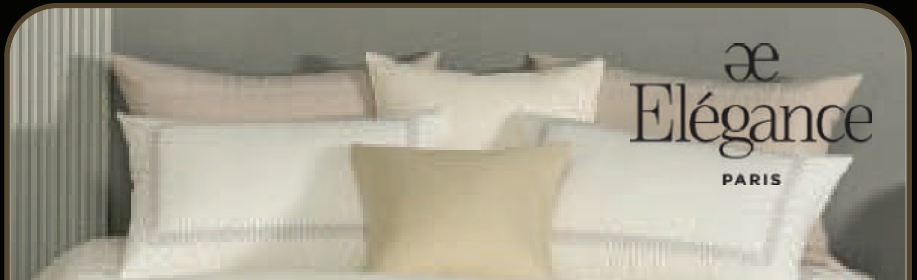
## 조삼원 녹용홍삼 프리미엄 60P

바쁜생활에 지친 현대인, 피로감을 느끼는 직장인, 부모님의 건강과 활력이 걱정인분! **허약한 몸, 신체강장에 특효!** 주식회사 강화홍삼의 조삼원 녹용홍삼 프리미엄!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세요



## 세라젬 V6

시대를 앞서가고 당신의 생각을 앞서가는 기술!! 세라젬이 탄생시킨 새로운 의료기기 세라젬 V6!! 세라젬 웰라이프 메디컬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세라젬 V6는 FDA Class II 등급 승인을 받은 최고의 마사지 침대입니다. 사용자 맞춤이 가능한 22가지 모드와 9단계의 강도 조절 그리고 3단계의 속도 조절 기능이 있으며, 발끝부터 무릎까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에어셀 마사지와 상체부터 하체까지 따뜻한 온열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된 전 구간 온열기능은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사지 경험을 선사합니다.



## 엘레강스 파리 홈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풍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하여 고급스럽고 편안한 침실을 연출하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12개국과 한국, 일본 홍콩등에서 높은 브랜드 평판 및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은 엘레강스 파리 홈 (Elegance Paris HOME) 친환경 소재인 너도밤나무와 목화솜 그리고 텐셀솜을 원료로하여 항균력을 높이고, 먼지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 면역력, 피부, 호흡기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게 탁월하며, 부드러운 감촉과 가벼운 무게가 깊은 숙면을 도와주는 엘레강스 파리 홈 (Elegance Paris HOME)의 다양한 침구류를 홈쇼핑월드에서 만나보세요!!

### LA 매장 오시는 길



### BUENA PARK 매장 오시는 길



L.A. 매장

760 S. SERRANO AVE. STE. 101-102  
LOS ANGELES, CA 90005  
213-380-3330 / 3307

콜 센터

단체주문 / 홈세일  
타주주문 전화상담  
1-855-818-0050

B.P. 매장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714-522-2494 / 2496



#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불허 요청”

댓글 28 2025년 1월 2일(목) 미주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기사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이하 한국시간)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User\_001** 2025-01-02  
자기들의 정권쟁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당과 그 무리들... 아녀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잡음을 만들어 댈기 급급했던 정권과 그 가신 무리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판 현실이다.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그저 자기들 뒤편 실리 챙기기에 우선인 잡배들...

**User\_002** 2025-01-02  
대중이가 IMF때 많은 가정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을 했을 때도 적에게 큰 목돈을 갖다 바친 여적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라고 무죄. 거기에 비하면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은 왜?이게 안되니 궁여지책으로 내란으로 몬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이번 건은 정치적 싸움이라기 보다 미국대 중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혈투.

**User\_003** 2025-01-02  
엄동설한에 아스팔트바닥에 누워 몇일씩 투쟁하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쉽지 않는 일인데 누구의 강제도 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동포들에게 영광 있으라. 북한의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통일 이 되면 우리민족은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다.

**User\_004** 2025-01-02  
얼마나 못나고 덜 되먹은 인간이란게 전세계에 중계되고 있다는 게 창피합니다. Ap도 "윤, 구금시도 방해하려 지지자 선동" 이라 했다는 군요.경호처 직원은 이 머저리 보호하려다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음에도 자신을 위해 체포영장 들고 간 공수처와 맞서게 하는 야비한 X입니다. 이 상황에도 이재명 핑계를 대야 하는 슬픈 X네요.

# 새해와 함께 대반전의 상황이...

댓글 14 2024년 12월 30일(월) 미주한국일보 미주판 오피니언 칼럼 옥세철 논설위원

‘2024년은...’ 왠지 호흡이 멎는 느낌이다. 너무나도 복잡다단한, 아니 너무 어이없는 일의 연속인 한 해였기 때문인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써본다. ‘2024년은... 어떤 해였나.’ ‘세 대륙에서 동시에 전쟁이 전개됐다. 이스라엘의 가자, 레바논, 우크라이나 그리고 수단이 그 현장이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이 잇달았다. 그런 가운데 2차 대전 이후의 다자주의 질서는 무너져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한 단이다.



을사년 乙巳年 푸른 뱀의 해

한국의 ‘갑진년(甲辰年)’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방탄, 방탄, 또 방탄,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래서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29번 째. 탄핵광풍이 몰아쳤다.(중략) 무엇을 말하나. CRINKs(중-러-이란-북한 블록)형성과 함께 그 기세가 자못 등등했었다. 그 독재세력들이 자유 민주주의진영과의 대결에서 예기치 못한 좌절과 함께 일패도지(一敗塗地)의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 아닐까.그렇지만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의 대립은 당분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도량발호(跳梁跋扈),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연쇄탄핵을 마다않으며 날뛰고 있는 민주당과 종종종북세력. 한국의 상황이 그 한 예고편이 아닐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에 남느냐, 북-중-러 전체주의로 가느냐, 그 갈림길의 막판 결전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수호 세력과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 내란세력의 대결은 단순한 정치 내전을 넘어선 국제전 양상을 보여 하는 말이다. 승리는 결국 자유진영의 편이 될 것이란 강한 예감이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패륜에, 잡범 전과자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더나가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세계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예...새해와 함께 상황의 대반전을 기대해본다.

**User\_001** 2024-12-30  
북한에 핵을 선물하고 그는 노벨상을 먹었다.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지략가이다.

**User\_002** 2024-12-30  
한마디로 요지경 그 요지경이 불만한 기대 할 만한 희망을 우리모두가 잘 살 수있는 고런 요지경이아닌 지들끼리 끼리 잘먹고 잘 살겠다고 날 뛰는 정신이상자들의 저질들의 생각도 알줄도 알려고도 안하며 커더라로 개골대는 요지경. 그래도 옳고 그름을 알고 잘 버텨 내가 할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엔 썩 하고 햇빛이 뜨는 날이 올 거라고 난 장담한다.

**User\_003** 2024-12-30  
야당대표 감옥 보내기에 사활을 건 대통령과 여당. 그런 4류 정치가 박가야로 이후에 다시 등장했다...

**User\_004** 2024-12-30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더니 어쩔수 없군. 박통때 세뇌돼서 기득권 친일파 세력에 대항하는 자들은 다 빨갱이 종북 세력으로 간주하니. ㅉㅉ 왜 검찰 깡패집단을 개혁하려 하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오? 그리고 북쪽에 돈 몇푼 쥐주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내는게 경제적으로 득이겠고 아님 지금의 윤처럼 북한에 으르렁 거리다 오물 풍선이나 맞고 북러 동맹이 이뤄지게 하는 게 낫겠소?



소비자 감사 이벤트

# 처음처럼

한정 **세일** 진행

처음처럼 6병 + 신라면 4봉지

가까운 한인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19.99~\$20.99**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비자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재입국 허가서
- 그 외 모든 비자

## 영주권신청

- 투자이민
  -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
  - 사업운동을 통한 직접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 종교이민

## 시민권신청

- 시민권신청 부적격성 판단



### 이경희 변호사 Kyung Hee Lee

서울대학교 졸업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 (Intern & Externship)

Asian Human Services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회원

논문 : Human Rights Abuse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Diversity-based Affirmative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등

###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imin)

Website : [www.iminusa.net](http://www.iminusa.net)

Email : [imin@iminusa.net](mailto:imin@iminusa.net)



# CERTAINTY VS. DOUBT



**신혜원 변호사**  
Certified Specialist,  
Family Law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새해 결심을 다짐하셨는지요? 어떤 결심, 다짐이시든, 열심히, 꾸준히 지켜 나가시길 응원하며, 저의 새해 결심에 영향을 미친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콘클라베(CONCLAVE 2024)는 소설가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라틴어 콘클라베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로, 교황 선종 시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단이 소집되어 진행되는 교황 선출 비밀회의를 말한다 합니다.

영화에서, 공석이 된 교황직의 새 교황을 뽑기 위해, 전 세계의 카톨릭 교회 선거인단 추기경들이 바티칸 홀에 모이고, 선거 과정 내내 외부와 차단된 비밀 투표장인 시스티나 성당에서,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선거를 되풀이합니다.

이 때, 주인공 로렌스 추기경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진행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내로라하는 카톨릭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새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 내내, 후보자 및 지지자들 간에 파벌과 대립이 난무하는 가운데, 후보자 들, 한 명 한 명의 상상도 못 할 비리와 음모를 주인공 로렌스 추기경이 파헤치고 밝혀 나가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엔딩 또한 반전과 충격을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최고로 신망 받는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가장 신성한 교황직을 쟁취하기 위해 벌리는 파벌, 대



한 치의 의심없이 자신하는 내 확신, 믿음, 신념  
때로는 가장 소중한 가족관계 병들게 할 수도

립, 음모, 비리는 이 세상 어느 정치 판 선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 부패, 비리, 분쟁과 하 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주제, 소재를 다룬 영화는 허다히 많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뻔하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제 마음을 후~욱 하고 건드린 부분은 바로 주인공 로렌스 추기경의 기도입니다. 영화에서, 새 교황이 되고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하나 같이, '내 신념만이, 내 믿음만이, 내 방향만이, 나 아니면 안 되' '저 후보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다 망

한다'라고 비방, 선동, 협박을 뿜어 낼 때, 로렌스 추기경은 이 모든 이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 어떤 죄보다 가장 두려워하게 된 단 하나의 죄는 'Certainty(확신)'입니다. Certainty는 하나로 단합하는 것의 적이며, 인내함에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에게 늘 확신에 찬 교황이 아니라, 혹여 틀릴까, 아닐까, 'Doubt(의심, 염려)'해보는 그런 교황을 허락해 주소서.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황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모두가 영어를 배울 때, 사용

할 때, Certainty는 확실, 확신 등 긍정적인 의미로, Doubt은 의심, 염려, 불확실, 뭔가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의미를 떠올리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에서, 끊임없이 확실, 확신이 요구, 강요되어 지고, 우리는 확실, 확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Certainty, 확신이 가장 소중한 관계를 병들게 하고 깨뜨리고, 결국 파탄으로 치달게 하는 것을 제가 접해온 수많은 이혼 케이스에서 매일 보게 됩니다.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네가 뭘 안

다고 그래? 네가 나보다 똑똑하길 해, 잘 나갈 해? 내가 한 번이라도 틀리는 것 봤어?', '아니라니까, 네가 틀렸더니', '아이구, 이 집구석에서 나 아니면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되'.

이 칼럼은,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감히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글이 아니라,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에 비추어 '아~~'하고 든 느낌을 나누고자 하는 글입니다. 저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들 간에, 또 30여년의 가정법 전문변호사라는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업무를 보는 가운데, 한 치의 의심, 재고의 여지없이 Certainty, 확신, 자신하며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순간 들이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Certainty가 자동적으로 나를 움직이려 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과연 그럴까? 혹시 아닐 수도 있을까?' 라고, 내 생각, 신념, 확신에 대해 Doubt을 해 볼 수 있는 열린 귀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새해 다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213)385-3773

## 주택 장만 및 융자

경기 불황으로 주택 장만과 융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저희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님의 최적의 주택 장만 및 대출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택 장만 승인부터 대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 장만 및 융자(NON-QM/NO TAX DOC 포함), 재융자, 커머셜 융자, SBA론, 그리고 특히 교회 융자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 첫 주택 구입
- ✔ 첫 주택 융자(NON-QM/NO TAX DOC 포함)
- ✔ 좋은 조건 재융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KENNETH PARK | NMLS #2015849  
DIRECT CONTACT : (310) 800-1747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 “2025 을사년 50대 이후 현실적인 성공이란?”



리처드 김

- CSUF 사회학과 졸업
- 다음 행시문학, 미주 행시문학 카페지기
- 페이스북 <오늘의 사색> 작가
- SAG AFTRA 배우 조합 회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한다. 이런 새해 계획은 삶을 활력있게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런 성공을 위한 노력은 젊은 나이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50대 이후가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심을 꾸준히 지켜내기가 힘들다. 이런 성공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의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한 현재의 구체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50대 이후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통해 열심히 노력을 해 보지만 성공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리한 열정과 노력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과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다.

50대 이후는 자신의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 들이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하지 않는 법’으로 살아가면 무난하게 남은 생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0대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내고 성공을 했다면 정말로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나이가 되었어도 경제적 안정과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지난 과거의 삶을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현실적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실패하지 않는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이 반복 된 실수만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인생을 굴곡없이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한 목표 의식에 사로잡혀 주위 사람들

을 돌보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성공은 쉽지않다. 특히 50대 이후는 자신의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 들이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하지 않는 법"으로 살아가면 무난하게 남은 생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50대 이후의 현실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체력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50대 이후의 꾸준한 체력 관리는 60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게을리하면 노년에 병원 신세를 질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열심히 노력

을 하며 사는 이유는 노년의 삶을 여유롭게 살기 위함인데 만약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이루어 놓은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부도 큰 의미가 없어진다.

주위 소상공인 지인분들에게 2025년 새해의 바람을 물어보면 "사업이 더 나빠지지 않게 잘 버텨 보는 것"이라 말하는 분들이 많다. 시장 경제가 좋았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저축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빚지지 않고 현상 유지만해도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50대 이후에 갑자기 실직이라도 하게되면 직장 잡기가 힘들어진다. 50대 이후 실직

을 하게되면 법정 시급을 받는 수준에서 일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60대만 되어도 일 자리를 주는 곳이 거의 없기에 주위 분들을 보면 우버나 리프트 경비업이나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도 체력의 한계때문에 몇 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 그만 둔다.

50대 이후에도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면 구름 잡는 헛된 꿈을 쫓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법으로 조금씩 발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해의 목표 중에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체력 관리를 잘 해 병원 신세를 지지않고 건강만이라도 잘 지켜 낼 수만 있다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50대 이후 희망찬 새해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다짐이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무리한 결심이라면 자신의 현실에 맞게 새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사람은 얼굴 빛을 숨길 수 없다. 나이가 들 수록 밝고 여유로운 얼굴이 좋다. 2025년 새해 계획은 무리하게 목표를 잡아 자신의 삶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말고 반복 된 실수를 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현실적인 50대 이후의 성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장례 보험으로 시작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슬픔속에서도 평온과 안정감으로 당신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 장례준비 혜택

- 경제적 안정 :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심리적 평온 :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존경, 감사,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 오랜 경험의 전문가가 다릅니다. 세심한 계획으로 쉽고, 빠르게 지원합니다.

### 생활속에 꼭!필요한 이야기 라디오방송 진행중

- ▶ 라디오서울 1650AM 매주월요일/새벽 5:30~6:00
- ▶ 우리방송 1230AM 매주일요일/아침 7:00~7:30
- ▶ 한국TV(tvhankook.com) → 라이프 → 조마리아 · 영상 다시보기



장례보험 · 무료상담

PROFESSIONAL FUNERAL PLANNER www.mariachofp.com

☎ 310.987.0736 / 626.890.9545

카톡 이나 문자 로 간편하게 상담을 예약하세요.



# 2025년 한국인의 염원, '안정'과 '희망'을 꿈꾸며...



## 2025을사년

2025년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는 한국 한국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단연 '안정'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절실한 희망을 품고 있어...



**이지효 교수**  
문화콘텐츠학 박사  
한국의국어대학교 겸임교수

2025년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단연 '안정'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갈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 큼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또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거 문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 중 하나입니다.

집값 안정과 함께 현실적인 주거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특히 신혼 부부와 청년층은 적절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일자리 문제 역시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종의 발굴과 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경쟁 완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바랍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교육 방식의 도입,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 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육아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해소도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청년과 노년, 부유층과 서민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연금 개혁, 일자리 문제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의 협력과 대

화를 통한 생산적인 정치 문화 정착을 바랍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특히 민생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소,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큼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점차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테크, K-학

신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4년은 전체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향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한국인들의 바람은 결국 '안정 속의 희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절실한 희망을 품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이 하나둘 실현되어 모두가 행복한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jihyol@gmail.com

musicplaza.com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뮤직플라자 (213)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 영어도 안 되는데 왜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한국인들만 큰 영어 구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민족이 전세계에 있는 지 궁금하다. 한국인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마치 한인 2-3세대들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한인 1-1.5세대들은 그렇게 말해야 미국인들에게 수모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국은 대부분의 업소 간판을 이상한 영어 단어들로 치장함에도 불구하고 워라벨, 뇌피셜, 핫플, 바겐세일, 모닝콜 같이 국적불명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겠다는 지 궁금하다.

미국에 사는 한인 1세대들도 영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률 용어는 영어로 설명하나 한국어로 설명하나 알아듣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법률 용어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법률 용어들을 한인 변호사들이 한국어로 설명해주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똑바로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와 외뢰인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이겨내기 힘들어



영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한인 1세대들이 한국어를 못 말하는 미국인 변호사들은 선임해서 생기는 슬픈(?) 에피소드들이 많다. 최근 만난 클라이언트는 노동법 소송을 당했는데 주변 지인의 소개로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소개 사이트를 보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특허법 전문 변호사였다. 가뜰이나 어려운 노동법 용어를 특허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들었으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변호사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 클라이언트는 털어놓았다. 그래서 결국 파산을 하려고

한인 파산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필자도 잘 아는 한인 파산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파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이 높았다. 왜냐하면 첫번째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었다. 많은 한인들이 첫번째 변호사를 못 믿으면 그 다음에 선임하는 변호사들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첫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을 경우 재혼하는 두번째 남편도 의심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파산에 대해 여러번 설명을 파산법 변호사가 해주고 본인이 종이에 받아쓰면서 알았다고 했지만 파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파산이 미뤄졌다. 간신히 파산을 파일했지만 이제는

파산을 해도 노동법 소송이 걱정되어서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파산법 변호사에 의하면 그분의 케이스는 파산으로 노동법 소송이 해결된다고 100번도 넘게 말했는데 필자에게 노동법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기가 막혀했다.

만일 미국인 변호사과의 대화를 이해하기 힘들면 그 변호사에게 한국어 통역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한국어 통역을 데리고 대화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어로 법률 용어를 말해도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은 부부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인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은 보면

약간 답답하다. 물론 유대인 변호사들이 한국인 부인들이나 한국인 사무장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썬' 유대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소송 방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종업원만 변호하는 부티크 로펌인데 여러번 상대방으로 붙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로펌에 합류하라고 권유했다. 50여명의 변호사가 있는 LA에 위치한 로펌인데 고용주만 변호하는 필자에게 전향(?)하라는 삼고초려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 로펌은 필자가 한인 클라이언트들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케이스들을 해결한 것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물론 필자는 이 로펌에 가고 싶은 맘은 전혀 없지만 필자를 이렇게 좋게 본다는 점에 감동했다.

필자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와 외뢰인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이 변호사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똑바로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의: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위생적인 최신설비로 100% 자연산 다슬기를 사용하여 72시간 정성을 다해 추출한 서제천영농조합 다슬기 기름

### 충북제천에서 온 동강청정 다슬기 기름 효능

장 건강, 변비예방 / 빈혈예방 / 숙취해소  
혈관건강 / 골다공증 / 음주전후 / 눈건강

▶ 편리한 파우치형 포장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다슬기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다섭취시 배탈이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스밸리 메스퀴트 플랫 샌드 둔 (Mesquite Flat Sand Dunes)”



2년전 1월 중순 데스밸리 국립공원 사진출사중 흔히 모래사막으로 알려진 메스퀴트 플랫 샌드 둔에서 이른 아침에 촬영한 사진이다. 캄캄한 새벽에 출발해 약 1시간 가량 모래사막안으로 걸어 들어가 발자국이 전혀 없는 곳에서 황금빛의 모래결과 능선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풍경사진 전문작가 베네딕트 양 (213-446-7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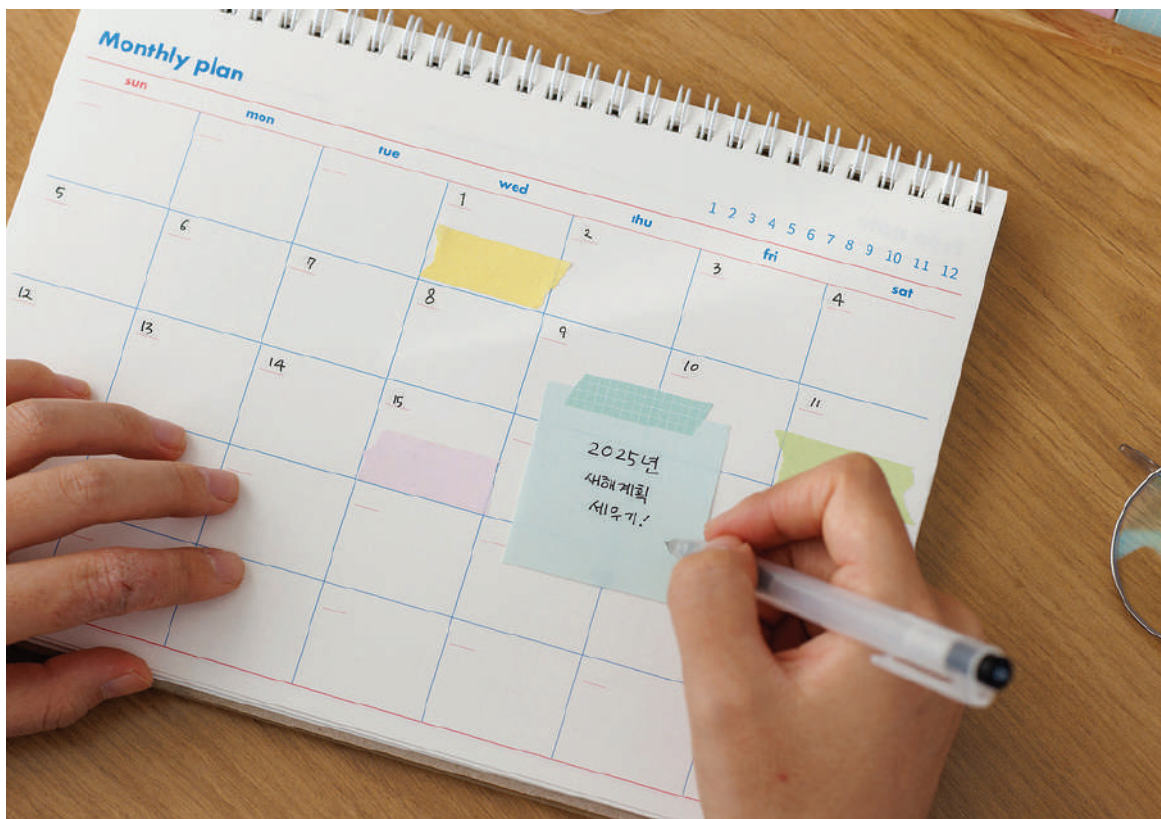
[Benedict Heckwan Yang](#)  
[benedict\\_photography](#)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 새해에는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1)



우리는 새해가 올 때마다 무엇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다음 년도가 돌아 올 때까지 우리는 또 절망하면서 다음 새해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인생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 심장이 약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튀긴 음식과 육식을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막상 튀긴 음식의 냄새만 맡아도 주저하지 않고 먹게 되고, 매 식사 때마다 고기를 섭취합니다. 그리고는 또 후회를 하죠. 주치의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음식 조절을 하셔야 한다고요. 짜증이 나실 겁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데 고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도 잘 알고 있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인지 능력과 동기 부여 그리고 의지와 집중력에 의존을 해서 습관

사람이 갖는 의지와 동기와 집중력은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 이것들에 의존해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려 하면 반드시 실패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나?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습관화를 시키는 것

을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첫번째 단계),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두번째 단계), 자신의 의지력을 불사르며(세번째 단

계),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하면(네번째 단계) 자신의 행동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이 믿음이 틀렸다는 사실이 지난 십여 년간의 많은 심리학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나쁜 행동을 고쳐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믿음에 기초를 두고 고쳐보려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갖는 의지와 동기, 그리고 집중력은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의존해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려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습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치를 내려 놓고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행동을 아주 단순한 행동으로 쪼개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해부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라는 애매한 계획을 단순한 행동 한가지로 쪼개서 반복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따뜻한 물 한잔을 마신다든지,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산책을 1시간씩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주 단순한 행동 한가지를 매일 매일 똑같은 상황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똑같은 상황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뇌에서 그 상황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다든지, 차에 앉자마자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행동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아도 뇌에서 이미 같은 상황에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습관이 자리잡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ssung0191@yahoo.com

아세요 이 말?  
이렇게 깊은 뜻이~

## 추파를 던지다

추파(秋波)는 한자로 가을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 여자의 맑고 고운 눈길이라는 뜻의 담긴 한자어인데 실생활에서는 추파를 던진다는 말로 많이 쓰이며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

추파를 던진다고 쓰일 때 '추파'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빛을 뜻하며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태도나 기색도 추파의 의미다.

##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한마디

### 상풍고절

霜風高節

서리 상(霜) 바람 풍(風) 높을 고(高) 마디 절(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여도 결코 굽히지 아니하는 높은 절개를 이르는 말로 오상고절(傲霜孤節) 심한 서릿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절개를 지킨다라는 사자성어와 유사한 말이다.

서리와 추위에 굴하지 않는 국화를 말할 때 오상고절, 상풍고절의 꽃이라고 말한다.





# 주식 STOCK

주식을 하는 이들 이면 늘 입에서 맴도는 말, "그때 그걸 사야 하는 건데..."  
사야 하는 주식은 정말로 많다. 그러나 그런 주식은 늘 우리를 피해 다닌다.



**정재윤**  
방송인, AdSense 대표



조언이 있어서 소개한다.

주식현황을 자주 보면 무조건 실패한다. 폭락 앞에서 의견 해야 한다. 10년은 기본, 가능하면 평생 보유하라.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의 절반은 인출하라. 분산 투자 한답시며 알지도 못하는 주식들을 골 고루 사면 망한다.

1등 주식보다는 장차 2등이 될 10등짜리 주식을 찾아라, 잡초에 물 주지 마라 등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개인은 결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와 주요 세력들은 이미 한 통속이 되어 월스트리트\*를 좌지우지 하기 때문이다.

\*Wall Street :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며, 인디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높은 벽을 세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월 스트리트다.

지금은 주식으로 목돈 한 번 벌 어 보겠다는 우리가 인디언이고, 그 벽은 우리 인디언들이 넘기엔 너무나 높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닭 50마리를 샀다. 그 닭들이 알을 낳고 또 낳고, 부화를 거듭하며 닭은 수백 마리가 넘게 되었고 수입도 좋아졌다.

그렇게 몇 년 지나자 그는 수 천 마리가 넘는 닭을 기르는 대규모 양계장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양계장이 번창하고 있던 중, 그 마을에 대홍수가 났다. 수 천 마리의 닭들이 물에 떠내려 가거나 빠져 죽었다. 양계장 주인은 실의에 빠져 탄식을 쏟아냈다. "내가 생각 이 짧았어. 이런

줄 알았다면 오리를 기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주식]이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코카콜라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이 1886년이다. 만약 나의 할아버지가 당시에 코카콜라 주식 한 개 더도 말고 딱 한 개만 구입했어도 지금 그 가치가 700만 달러 정도가 된다. 아.. 그때 그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하는 이들 이면 늘 입에서 씨부리 듯 뱉는 말, 그때 그걸 사야 하는 건데. 사야 하는 주

식은 정말로 많다. 그러나 그런 주식은 늘 우리를 피해 다닌다.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서 베팅을 적게 했을 땐 '21'이 나오고, 베팅을 많이 할 땐 딜러가 '21'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주식은 도박이다. 물론, 손가락질하는 이 없고, 집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의지하여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카지노 도박과 다른 점이긴 해도 도박이 맞다.

주식 전문가가 얘기하는 몇 가지



## 볼 빨개지는 이야기

### 안스는 남자

갱년기 하면 우리는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중년이 되면 겪는 여성의 증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남자들도 중년이 되면 갱년기를 겪게 된다.

40대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에서 감정적으로 공허감, 우울감을 느끼는 갱년기도 있지만 가장 흔한 갱년기 증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발기부전이다. 중년 남성이 되면 부부관계의 횟수가 저절로 줄어들어 주 1-2회 하던 성생활이 월 1-2회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나마도 발기가 안되거나 꺾끗하게(?) 서질않는 강직도가 약한 발기상태가 되는 증세를 겪게 되며 잠자리를 자꾸 회피하게 되는 갱년기 증세를 겪는다.

이 증세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고환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성기능이 약화되고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어, 굴, 전복 내장, 흑염소등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아령 들기, 팔굽혀 펴기 등의 근력운동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화장실에서 읽으면 더 재밌는 아재아재 개그

\* 알파벳 D가 20개를 다른말로?  
- 스무 디

\* 내과 의사가 퇴근 하는 시간은?  
- 내시경

\* 한양을 영어로 하면?  
- 옛설 (옛서울)

\*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 자원봉사자

\* 일본 굴이 자신을 먹어달라며 하는 말?  
- 나가무라

\* 학생들이 가장 싫어 하는 피자?  
- 책피자

\* '창이 날라오니까 피해'를 세글자로?  
- 창피해

\* 지방 흡입의 반대말?  
- 수도권 배출

\* 입이 S 자로 되어 있으면?  
- EBS





# 융자전문

융자외길 33년, **브라이언** 주의  
경험과 완벽한 일 처리, 꼼꼼한 마무리,  
그리고 **헤일리 홍**에게 맡겨주세요

- **타주융자**

비즈니스 · 식당전문

- **Merchant Credit Card Loan**

- 크레딧 카드 매출이 매달 \$50,000 이상이면 가능
- Credit Score 580점 이상/
- 2-3일 만에 Funding 가능
- NO FEE

- **주택 2차 융자**

- 현재 저렴한 융자 유지하며 집 가격의 **75%까지** 융자 가능
- 세금 보고 필요 없음 (직장인, 자영업)
- 이자 8% 후반 30년 고정

- **EASY DOC**

- 25-30 % DOWN 7.5%부터 시작
- 재직증명만으로 융자 가능
- 12Mons Bank Statements 만으로 융자 가능

- **30년 고정 6.25% 부터**

- ✓ 최저이자 서비스

- ✓ 신속 친절 융자

- ✓ NO Cost 융자

- ✓ 개인별 맞춤 융자



브라이언 주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BrianJoo@aol.com

**Brian Joo**  
NMLS #335934

**213.219.9988**

한국일보경제면 전문가 칼럼 게재중



헤일리 홍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Hailey Hong**  
NMLS # 2389535

**714.253.2937**

leewayfunding4@gmail.com



3600 Wilshire Bl. Ste 410, LA, CA 90010



# 그룹사운드 선구자

## 김창완 밴드 '미주 순회 공연'

March 25, 2010  
월서이벨극장

March 27, 2010  
시애틀 어번퍼포밍아트센터

March 28, 2010  
시카고 노스 쇼어센터

대'산울림'은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삼형제가 결성한 대한민국 록밴드이다. 기타와 보컬은 첫째인 김창완이 맡고, 베이스는 둘째 창훈, 드럼

은 막내인 창익이 맡았다. 1977년 그들의 데뷔앨범에 수록된 『아니 벌써』가 세상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음반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다.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와 생소한 노랫말은 한국 대중 음악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다. 천편일률적인 사랑타령에서 벗어난 노래들은 의식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닌 오로지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향하여 만들어낸 국내 최초의 이색 음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듯 데뷔 당시부터 화제를 뿌리며 197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이르

기까지 한국의 그룹사운드 시대를 활짝 연 선구자이기도 하다. 주옥같은 곡들이 수록되어있는 13장의 정규앨범 중에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1,2,3집이 선정될 만큼 그 당시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왔던 뮤지션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삼형제 중 창훈, 창익의 사회생활로 한동안 산울림 활동을 잠정 중단한 시절도 있었으나 1997년 다시 모여서 산울림 13집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06년 7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었던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즈음하여 각자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산울림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결의가 있는 후 불과 얼마 뒤 그 결의가 무색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2008년 1월 29일 막내인 창익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30년 넘게 함께 활동한 동료이자 식구인 막내동생을 졸지에 잃은 김창완은 한동안 심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산울림의 공식 활동을 중단하는 듯했으나 그 후 얼마 뒤 젊은 연주자 4명을 영입하여 '김창완 밴드'를 탄생시킨다. 그러나 산울림의 음악, 산울림의 정신, 산울림의 감성은 그대로 계승한다는 취지 아래서였다. 이상훈(키보드), 강윤기(드럼), 최원식(베이스), 하세가와(기타) 등 30대 실력파 뮤지션들과 새로운 밴드를 구성한 김창완은 창단 이후 첫 해외 공연으로 미주 3개 도시(엘에이, 시애틀, 시카고) 순회 공연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전 일정을 우리 사무실과 계약하였다. 2010년 3월 25일 엘에이

월서이벨극장을 시작으로 27일 시애틀 어번 퍼포밍 아트센터, 28일 시카고 노스 쇼어센터이다. 다소 무리였으나 서울에 미리 잡혀 있는 일정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엘에이 공연을 하루 앞둔 3월 24일, 코리아타운 시티센터에서는 마지막 홍보를 겸한 팬 사인회가 열렸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매니아 팬들과 시몬마켓을 이용하던 주부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팬사인회가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근 드라마 『하얀 거탑』, 『커피 프린스』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인상 깊게 본 많은 주부가 저마다 기념사진을 먼저 찍겠다고 혼잡을 피우는 바람에 예정된 2시간을 많이 넘겨버렸다. 그 가운데서 콘서트 입장권도 50여 장이나 현장 판매되었다. 드디어 3월 25일 월서이벨극장 무대에 청바지를 입은 김창완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의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긴다. 늘 옆집 아저씨 같은 포근하고 편안한 모습이다. 공연 도중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관객의 애교 섞인 항의도 부드럽게 받아 넘어가며 노래 중간중간 그의 음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저서를 여러 권 낸 작가답게 재미있게 들려준다. 열정적인 무대다. 인터미션 없이 두 시간이 넘는 라이브 무대를 산울림의 히트곡인 『아니 벌써』, 『가지 마요』, 『그대 떠나는 날에』, 『꼬마야』, 『산 할아버지』, 『창문 넘어 어렵פות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등과 김창완 밴드가 2008년에 발표한 『The Happiest』, 2009년에 발표한 『Bus』에 수록된 최신 곡



이광진

- 문화기획사 에이콤 대표 (한인사회에서 120여 편의 무대공연을 기획/제작한 공연 프로듀서)
- 전 '가주예술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극단 '공간' 대표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미주홍보대사
- 글로벌극장(대학로) 운영이사
- 저서 : 사막에서 연극을 만나다



들을 그의 새로운 뮤지션들과 훌륭히 소화해 내었다. 한국에서 전국 투어를 하며 잘 다져진 완벽한 무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열정적인 공연이 끝나고 '김창완 밴드'가 무대에서 사라지려는 순간 관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일어나 "앵콜"을 외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등장하여 전 관객을 기립시킨 후 20여 분 동안 아껴놓았던 '나 어떡해'를 비롯하여 70, 80 히트곡들을 메들리로 연이어 부르면서 팬들의 앵콜에 기쁘게 화답하여 주었다. '산울림', 이제 다시는 삼형제가 한 무대에서 노래할 순 없지만, '김창완 밴드'의 이름으로 무대에 서는 이번 공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껏 산울림을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엘에이 공연을 시작으로 시애틀 시카고 공연을 예정대로 마무리하며 '김창완 밴드'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미주 동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주고 한국으로 떠났다.

# 문화기획사 에이콤 35주년 감사 음악대축제

Feb. 1.2025 (Sat) 7:00 PM

Soboba Casino Resort, Cabaret Lounge  
22777 Soboba Rd, San Jacinto, CA 92583



※ H-매거진 애독자 200분을 초청합니다!

감사티켓 배부처 : 상호관광 (213)427-5500 / 잠코보석 (909)440-0500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1층)





# 중국 남해금 한의원

목, 허리 디스크(척추관 협착증/치료) 전문 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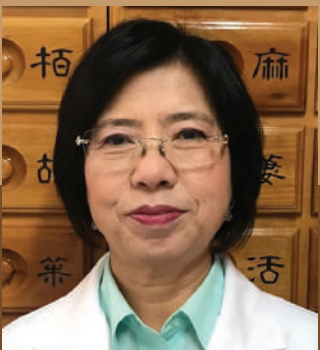


## 놀라운 치료효과

중국4대 한의사 가정에서 태어나 대대로 물려받은 특수한 치료방법으로 허리디스크를 치료하여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수많은 디스크를 치유하여 환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 이런분들은 꼭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1) 가끔 허리가 아프고 특히 오래 서서 일하거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면 통증이 더 심하신 분
- 2) 여름철보다 가을이나 특히 겨울 차가운 날씨에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
- 3) 한쪽 다리가 가늘어지면서 통증이 심하신 분
- 4) 허리와 다리가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 한분
- 5) 다리와 허리가 몹시 아프다가 드러 누우면 좀 통증이 완화되시는 분
- 6) 양방 MRI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며 오래 치료했으나 치유가 잘 안되는 분



중국 정통 침구료법으로 인제 음양을 조정하고 경락을 수통하며 활혈화어한다.  
51년 임상 경력 목·허리디스크 / 불임전문가 남해금 박사!

원장 **남해금** 한의학 박사  
President Haijin Nam, L,AC,Ph D

**213-500-7733**  
2525 W. 8th. #211 LA, CA 90057





김준철

- 현) 25대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 시집 『꽃의 기털은 눈이 부시다』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슬픔의 모서리는 뭉뚱하다』 전자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짠』

# 그들은 자세히, 아주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어. 헛갈릴 거야. 그러니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라.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오픈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인 2024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8부작으로 디즈니+에서 제작된 ‘조명가게’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강풀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 그의 ‘무빙’도 인상적이었지만, ‘조명가게’ 역시 말이 필요 없는 수작임을 증명했다. 이 웹툰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재된 작품으로, 배우 김희원의 감독 데뷔작이다. 사실, 김희원 배우에 대한 느낌과는 너무나 다른 연출이라 감독을 알고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출연 배우진의 구성이다. 주지훈, 박보영, 김설현, 배성우, 엄태구, 이정은, 김민하, 박혁권, 김대명, 신은수, 김선화, 김기해 등 이름만으로도 그 존재감을 내뿜는 배우들이 ‘조명가게’라는 기묘한 스토리 안에 기가 막히게 녹아들어 있다.

‘조명가게’를 간단히 말하자면, 조명을 파는 가게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면서 산자와 망자의 이야기가 독특한 구조로 펼쳐지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장르적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 종합 장르적 섬세함이 돋보인다.

드라마는 1화부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

는다.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 의문의 여인이 등장한다. 퇴근하는 남자가 매일 버스에서 하차할 때면 정류장 앞 의자에 그녀가 앉아 있다. 어느 날, 그녀가 비를 맞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남자는 황급히 다가가 우산을 받쳐주며 말을 건넨다. 자신을 아느냐고 묻는 그녀에게 그는 모른다고 답한다. 이렇게 이 드라마는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다.

제목으로 언급했던 대사는 ‘조명가게’ 주인공 주지훈이 손님으로 온 여학생에게 전하는 말이다. 극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둡고 부자연스러운 존재들이 스쳐 지나간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심이 피어나고, 평범한 골목길의 풍경이 공포로 변한다. 단순한 공포도, 멜로도, 신파도, 추리물도, 스릴러물도 아니지만, 이 모두를 담고 있는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어딘가 나 자신과 닮은 또 다른 나의 그늘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삶과 다르면서도 같은 안타까움을 담아내며,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에서 묘한 울림을 남긴다.

2025년, 여러분의 시간에도 화려하게 또는 은은히 빛나는 ‘조명가게’의 조명이 비치길 소망한다.

treeandmoon2022@gmail.com

## 너를 꾸고

김준철

흠뻑 젖은 잠 속에서 끄끙 앓는 소리에 눈을 떠 보니 네가 옆에 와 있다 창가 나뭇가지처럼 기우똥 앉아 있다 언제 왔냐? 물으니 답이 없다 무슨 일이냐? 해도 답이 없다 끄끙 앓는 소리만 새벽의 어둠을 들썩인다 오다가 다쳤냐? 하니 절레절레 집에서 다쳤냐? 하니 절레절레 멀리서 다쳐 이제야 왔냐? 물으니 이내 잠이 든다

잠이 들어

이내 물이 된다

물이 되어

내 이불을 적신다

우린 보통 신년이 되면 좋은 꿈 꾀라 혹은 좋은 꿈 꾀니? 하고 말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나이를 먹으며 느끼는 안타까움은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위로도 해보지만 꿈도 없이 깊은 늪 속에 잠겼다 일어난 것처럼 찌뿌둥하다.

나에게로 다가와 나에게서 녹아서 나에게 잠긴 아내가 옆에 있다. 그녀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몰래 전해본다.

### 김준철의 한 문장의 생각 코너 소개

영화, 시, 소설, 드라마, 신문, 잡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장들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Holiday Traditions



**Brian Lee**  
West Ranch High School  
10th Grade

With the winter season finally rolling around, many families cozy up their homes to welcome and celebrate various holiday traditions, from making new memories with friends and family to eating homemade meals and exchanging gifts. Let's take a look at a few of the many traditions that some students at West Ranch High School celebrate. For as long as he could remember, West Ranch sophomore Mathew Poberezhskiy has celebrated Hanukkah every holiday season since he was a baby. "Hanukkah is the Jewish festival of lights and is celebrated every year for eight

nights to commemorate the lasting of oil for a miraculous eight nights in the Temple of Jerusalem," Poberezhskiy explained. An integral part of Hanukkah as a celebration is recognizing the everlasting importance of family, which Poberezhskiy firmly agreed with. "This tradition is important to me because it means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it makes me feel grateful and happy," he added. To celebrate, Poberezhskiy's family gathers at the start of the eight-day holiday each year with a nice dinner consisting of traditional Jewish foods including matzoh ball soup and latkes. Poberezhskiy expressed, "I love devouring delicious food while I can laugh and catch up with some relatives that I haven't seen in a while." Each winter season, West Ranch sophomore Clayton Jakovich looks forward to a tradition that never gets old: going to Mammoth. Going to Mammoth during this

cold season is perfect as the consistently cold temperature helps natural snow stay on the ground longer, creating a firm and ideal condition for winter sports. This is exactly why Jakovich's family goes to Mammoth during this time, to Ski. "I have a wonderful time going Skiing on Mammoth as the snow feels so nice during this time of year that it feels like I am gliding." Jakovich described. Clayton not only likes to have fun Skiing but he also goes ahead to appreciate the beautiful lakes that encompass Mammoth by going on hiking trails. "Some of my favorite trails are the Crystal Lake Trail and the Duck Pass Trail. It always has been a tradition that we go ahead and visit these areas and see how much has changed over the years." Clayton says. Spending time with his family during Mammoth, having fun, and indulging in nature's beauty has been very healing for him, especially after a

rigorous finals week. For sophomore Ethan Shimabukuro, the holidays consist of a Christmas celebration mixed with multiple unique traditions starting with eating soba. This is a special Japanese culture that "when eating soba it is relieved to cut off any bad luck and instead, wish for a long life." Ethan says. However his celebration is also mixed with his own twist, Homie's Christmas Party. Shimabukuro describes it

saying, "We would come together at a friend's house and participate in Secret Santa, White Elephant, and Gift Brawl." He believes that it's the best one because it includes his family, friends, and presents. Whether it is lighting the menorah, having fun going to places or practicing unique gatherings, these traditions remind us that the holidays are about celebrating what makes each of us unique.



# Beyond the Trial: The True Measure of Leadership



**Jane Kwak**  
Fullerton Union High School  
11th Grade

"Objection!"

The prosecuting attorney's voice boomed across the room, forcefully cutting off our defense attorney's question. With no rebuttal to the opponent's objection, our attorney sat back down into her seat with visible defeat and dejection on her face. Around me, the members of my Mock Trial team and all witnesses and spectators sighed in collective disappointment as they averted their eyes towards the ground. The sight was disheartening, and I began to won-

der: Was I really good enough to be their coach?

When I created the mock trial club this August, I had ambitious dreams of giving students an experience of a lifetime: providing students with a competition that imitates real trial proceedings. I knew that the team was relying on me, so I could not let them down. Together, we spent countless nights and long hours preparing the teams for competition, making sure that everyone was confident in their abilities. However, it seemed as if the time preparing for this moment was for nothing, and the team's morale quickly diminished throughout the trial. The signs were clear: the team had given up.

It seemed as if my coaching did not help, and this burden of self-doubt continued to lurk after

the trial had ended. Even though everyone was encouraging one another with words of affirmation, I still felt that I had let the team down because I did not train them properly for the difficulty of the competition. However, when I came home that night, I had received a question from my teammate about their role. When I had responded back with my answer, they ended the conversation with a text thanking me for the effort I had put into the team.

The brief yet meaningful message proffered me with a sense of reassurance. The hard work that I had put into the team was still being recognized. From this experience, I ultimately learned that my efforts should not be determined on just the results, but the impact it creates to my community. Even though my hard work was

not shown through the trial that night, everyone still played their roles competently, and they rallied classmates together towar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 which was what my coaching was ultimately for.

Overall, the positive influence that my work has provided for my community is something that I am now proud of, even if it did not yield desired results. Even today, I am proud I was able to rise to the top in an activity that I enjoy.





# 빅토리아 그룹 VMS 재단 3주년기념 “VMC 코인, 글로벌거래소 디지털파이낸스에 \$10 상장”

전세계 최초 GPU+ASIC=VMC 공식으로  
GPU 채굴방식과 ASIC 채굴방식을 동시에 합쳐  
차량이 달리며 채굴하는 특허등록기술로 VMC 상장 레거



“나만의 코인을 만들어 원하는 가격에 리스팅하세요”  
“코인 제작부터, 상장까지 원스탑 서비스 해드립니다”

**하나.** 코인개발, 발행  
**둘.** 백서제작(한글, 영문)  
**셋.** 웹사이트제작  
**넷.** SNS 및 텔레그램 개설

**다섯.** 원하는 상장가격에 상장  
**여섯.** 빅토리아 미국거래소에 무료상장  
**일곱.** 업계최고의 MM 지원

**상장공시 뜰때까지 단\$1 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력과 정직**으로만 제작 및 서비스해드립니다.

대상 : 개인 및 단체, 기관

문의전화 : **425-535-0135**

(문의가 많으니 문자로 이름 및 단체명을 남겨주시면 리턴콜 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 :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안은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주관 : 빅토리아그룹 / 주최 : VMS 재단  
자체운영 빅토리아 거래소 : [www.victoriaex.com](http://www.victoriaex.com)  
VMC 웹사이트 : [www.vmsclassic.com](http://www.vmsclassic.com)



**VMCCOIN**  
VEHICLE MINING SYSTEM CLASSIC







스티븐 조 공인 뉴트리션리스트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감사의 달

# 고객 감사 메가 이벤트

1+1 2+1 누적선물이벤트



## 1+1 NHS GOLD 1+1 제품

하나공짜

- 산삼/민들레/영경귀 100캡슐(\$48)
- 산삼에키네시아 120캡슐(\$55)
- 산삼여주 120캡슐(\$45)
- 산삼콜라겐 90캡슐 (\$65)
- 산삼노루궁뎅이버섯 120캡슐 (\$65)
- 산삼시서스 120캡슐 (\$55)
- 아나볼릭 12캡슐 (\$85)
- 아나볼릭 24캡슐 (\$150)
- 강황 발란스 120캡슐 (\$55)
- 폴리코사놀 90캡슐 (\$38)
- 프로폴리스 60캡슐 (\$38)
- 알부민 60캡슐 (\$55)

## 2+1 NHS GOLD 2+1 제품

하나공짜

- 식이유황 파우더 150g (\$40)
- 식이유황 120캡슐(\$45)
- 산삼캡슐 30캡슐 (\$95)
- 죽염유황 100g (\$28)
- 진생마스틱 120캡슐 (\$65)
- 그린홍합 120캡슐(\$95)
- 메가구연산 60캡슐(\$45)
- 천삼농축액 블랙300g (\$240)
- 천삼농축액 레드300g (\$300)
- 천삼꽃 200g (\$149)
- 산삼공진단 10단(\$500)
- 산삼경옥고 600g (\$500)
- 산삼후코이단 120캡슐 (\$310)

**OTC 카드 환영** 전화 주문 및 상담 환영 **213-277-8866**

AI가 추천하는 면역력 증진을 위한 최상의 조합

## 강황 발란스 850

Turmeric Balance 850 / 120 v-caps



\$55.00 +Tax

1+1  
하나공짜

강황, 녹차, 천종산삼의  
완벽한 면역력 증진 조합

강력한 항염  
면역력 증진  
심혈관질환 개선  
에너지와 신진대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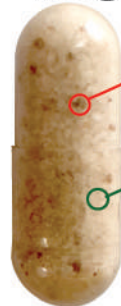
120  
베지캡슐

## 메가 구연산 캡슐

Mega Citric Acid 60 v-caps

2+1  
하나공짜

\$45.00 +Tax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 분말  
엄선된 미국 야생산삼을 상온 건조하여 삼증삼포하여  
분말로 가공하여 담았습니다.

100% 레몬 추출 구연산  
레몬에 3% 함유된 구연산을 추출하고 천연 레몬 비타민 C가  
혼합된 최상급 구연산

소나무 식이유황  
소나무 송진을 가공하여 분리 추출한 식이 유황

750mg 대용량 베지 캡슐  
간기능 개선 / 피로 회복  
각종 결석 예방 / 노화 개선  
위, 장 건강 / 혈관 청소



## 파격세일

## 노우스 캐롤라이나 야생 건천종산삼

50%할인

노우스 캐롤라이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산삼을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은 이곳에 거주하는 심마니들이 채취한 산삼을 지역 농림부에서 인증을 받아 스테이트 밖으로 반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진품입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주문 가능하며 방문시 농림부 인증서를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누적 선물 이벤트

\$1000

NHS GOLD  
메가구연산 (\$45)

+

\$500

지성식품  
레드비트 진액 (\$45)

+

\$300

자연의 품격 (\$38)  
메가 비타민 C 3000

+

\$100

NHS GOLD  
죽염유황 (\$28)

구매총액 기준 사은품을 누적해서 드립니다.



NHS 내추럴헬스시스템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식품 브랜드  
판매 개시 기념 특별 이벤트 !!'



2+1  
할인



NHS 내추럴헬스시스템이 드리는 2+1 할인 해당 제품

산수유즙, 흑마늘즙, 도라지배즙, 석류즙, 메가 비타민 C 3000, 레드비트 진액, 호박진액, 빨간양파진액, 양배추진액, 홍삼정프라임, 기력보강환, 아이홍삼, 홍삼정스틱, 순홍삼드링크, 홍삼젤리, 홍삼캔디



자연의 품격 전속모델  
연예인 조정석



# 건강검진과 함께 새해 시작하세요



**미미 산체스**  
너스 프랙티셔너(NP)

2025년이 시작했습니다. 새해 소망, 계획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꿈는 것이 건강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이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 등을 계획하곤 하고요.

하지만 쉽게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 정기검진입니다.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이 돼야 할 항목인데도 말이지요. 아무래도 의사, 병원하면 아프면, 아파야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건강검진 하면 왠지 복잡하고 무언가 대단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부담감이 꺼려지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일년에 한번 예약을 하고 의사를 만나 체중과 혈압, 콜레스테롤과 당 수치

를 재고, 혈액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체중은 정상인지, 과체중이거나 비만은 아닌지, 혈압은 괜찮은지, 고혈압이거나 저혈압은 아닌지, 당 수치는 정상인지, 당뇨는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중성지방은 있는지, 골다공증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혈압측정과 콜레스테롤 검사는 매년 한번씩, 35세 이상은 갑상선 검사를 5년에 한번씩 받으면 좋습니다.

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알아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검사 하나로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병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때 일반적인 진찰과 검사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예방접종과 예방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소아, 청소년기에만 하고 성인이 되면 매년 독감주사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게 가장 최신 백신을 맞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독감, 코로나 19 백신처럼 말이지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은 10년에 한번씩 예방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렸을 때 접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B형 간염과 홍역/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풍진(MMR) 백신은 다시 맞어도 무방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백신을, 65세가 넘으면 폐렴구균백신을 맞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60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은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RSV)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종류도 많고 접종시기도 다른데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챙기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치의의 문의하면 환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무슨 백신을 맞았고 어떤 백신을 더 맞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진료, 검사를 받았고 더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의료기록(Medical Record)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치의를 변경하셨거나 새해를 맞아 변경할 계획 이시라면 지금까지의 내 의료기록

을 새로운 주치의, 담당의와 공유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야 놓친 백신 접종과 검사를 하고 불필요한 접종, 검사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의료기록은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의사, 클리닉, 병원마다 의료기록 요청서(Medical Record Request Form)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요구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한 뒤 현재 또는 새로 이용하게 된 클리닉에 제출하면 클리닉 원무과가 처리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경우 많은데요, 한국에서 검진받고 끝낼 게 아니라 검진결과 요청해서 받아와 미국에 있는 현재 내 주치의, 담당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주치의, 담당의 말고 다른 의사나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거나 예방접종, 예방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주치의, 담당의에게 알려줘야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방검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암 예방검사를 빼놓을 수 없죠. 여성의 경우, 21세 이상은 3년에 한번 자궁경부암 검사를, 40세 이상은 매년 유방암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당화혈색소, 즉 당뇨검사도 3년 마다 한번 받을 것을 권합니다.

남성의 경우, 50세가 넘으면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40세가 넘으면 남녀 구분없이 소화기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45세가 넘으면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대장 내시경의 경우, 5~10년에 한번, 대변검사의 경우 1~2년에 한번 받으면 됩니다. 50세가 넘은 흡연자는 폐암 검사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검사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들 예방검사는 건강보험이 있으면 대부분 무료입니다. 다만, 보험종류, 보험플랜에 따라 커버가 되지 않는 검사가 있기도 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주치의 또는 담당의에게 전화해 정기검진과 예방검사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의 : (213)235-1210

## 외워두면 좋은 오늘의 영어 단어

# Eradicate

[ɪˈrædɪkət]

1. 근절하다 2. 전멸시키다 3. 뿌리뽑다

"He worked to eradicate disease, forge peace, advance civil rights and human rights, promote free and fair elections, house the homeless, and always advocate for the least among us. He saved, lifted, and changed the lives of people all across the globe," Biden said of Carter.

그는 질병을 근절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시민권과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진하고, 노숙자를 수용하며, 항상 우리 중 가장 작은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구하고, 해제하고,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바이든은 카터에 대해 말했습니다.

## 내몸에 좋은 H 꿀Tip

# 프룬

말린 자두를 뜻하는 프룬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과일이다. 프룬에는 식이섬유와 각종 철분과 미네랄, 비타민A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 면역력 증진**: 장 건강과 면역력 개선 효과
- 변비 개선**: '천연 변비약'으로 불릴 정도로 도움을 준다.
- 뼈 강화**: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뼈를 강화하는데 효과,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 성인병 예방**: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며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인 레닌의 활성을 억제 폴리페놀과 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여 노화나 암 등의 질환 예방
- 빈혈 예방과 눈 건강 증진**: 말린 프룬은 비타민A가 3배 이상 증가하는데, 비타민A는 안구건조증 혹은 야맹증 등에 효과가 있으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은데, 혈액을 통해 산소 공급을 하는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준다.



# 그날 저녁식탁에서 오간 대화가 세플러를 바꿔놓았다



위대한 시즌 속엔 참담한 좌절도  
“네 안의 목소리를 더 키워라”  
오랜 친구 조언 뒤 우승 붓물  
세플러 뒤엔 ‘세플러의 사람들’  
지금, 당신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러는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앞선 시즌 말미에 세계 최고의 퍼팅 코치 중 한 명인 필 케니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 말을 듣지 않는 퍼트는 잘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가 가장 힘든 법이죠.”

스스로는 바닥에서 허우적대는데 사람들은 순항하고 있다며 격려하고 웃어주니 세플러는 참담할 지경이었다. 다행인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주변인들이 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플러는 마음껏 실전 연습을 할 홀코스에 체육관, 즐겨 먹는 치폴레 매장, 출석하는 교회까지 모두 델러스의 집으로부터 지척에 두고 있다. 몇 마일 안에 다 있다. ‘좋은 사람들’도 늘 함께다. 고교 때의 첫사랑 메러디스가 아내이고 스윙 코치 랜디 스미스는 일곱 살 때부터 스승이다. 성경공부 모임에서 만난 캐디 스콧은 캐디 이상의 존재다.

브래드 페인도 세플러의 사람들 중 한 명이다. 페퍼다인대에서 골프를 했던 페인은 현재는 PGA 투어 상임목사다. 세플러와는 오랜 친구. 그의 캐디를 맡은 적도 있고 세플러 가족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제네시스 대회 때 세플러는 조출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페인과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괜찮은 거냐”는 친구이자 멘토의 한마디가 버튼 역할을 했다. 세플러는 퍼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낱알이 털어놓으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만히 듣고 있던 페인은 세플러가 좀 더 단순하고 용감해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칠 생각인 건데? 숨을 곳이 없잖아. 네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들보다 네가 더 큰 목소리를 가지면 좋겠어.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너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듣기 편한 위로와는 거리가 먼 페인의 말들에 세플러는 정신이 확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종의 리셋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지? 그냥 나가서 경쟁하는 걸 즐기는 거잖아.”

다른 이들의 기대에 끌려 다니는 대신 자기가 사랑하는 경쟁 그 자체를 감사해 하는 세플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는 현재만 직시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멘탈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칼같이 구분 짓는 법을 터득한 그였다. 지금 머무르는 바로 이곳, 현재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배어있었다. PGA 투어라는 최고 중의 최고 무대에서 기대만큼 잘해내는 과정 속에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 더미에 잠깐 열쇠를 빼뜨렸던 것이다.

세플러의 슬럼프 아닌 슬럼프는 제네시스 바로 다음 출전 대회인 3월 아

기도 했다. 세플러도 스트레스와 좌절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그 식탁에서 다시 중심을 잡았던 세플러는 이후 때로 아파하고 불평할지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파리 올림픽 마지막 날 세플러는 후반 9홀에서 버디 6개를 잡고 역전 우승했다.

어릴 적 ‘PGA 투어 선수가 되려면 어딜 가든 투어 선수처럼 입어야 한다’는 생각에 골프복 차림으로 등교하곤 했던 세플러는 요즘도 훈련 때 초심자용 그립으로 연습한다. 손가락 모양대로 홈이 난 연습 보조기구다. 뭘 하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카드 게임을 하면 이길 때까지 “한판 더”를 외쳐 같이 치던 사람들을 질리게 한다. 다음날 오전 티오프일 때도.

이렇게 승리에 대한 열망과 경쟁에 대한 순수한 애정 사이에서 균형을 잃는가 싶을 때도 있다.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친구들에게 “우승에 너무 간절해지는 게 좀 싫다”고 털어놓았던 세플러다. 그런 그에

산 만한 덩치(191cm)와 축 처진 눈매, 덩수룩하지만 오히려 순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수염까지. 스코티 세플러(28·미국)는 누가 봐도 순둥순둥한 모범생 골퍼다. ‘화려한 성적에 비해 캐릭터가 약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순한 외모와 반대로 맹수 서열 최상위권인 불곰처럼 세플러도 불같은 면이 있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최근 공개한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스코티 24’에는 세플러의 ‘화끈한’ 화풀이 장면이 담겨있다.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때의 일이다. 세플러는 퍼트 실패에 퍼터를 내팽개치는가 하면 홀을 이동하면서 골프볼을 사람이 없는 숲 쪽으로 냅다 던져버리기도 했다. 그의 캐디 테드 스콧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못 본 척 땅을 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이 대회에서 세플러는 티샷부터 그린 전까지의 수치는 전체 2위였다. 하지만 퍼트는 그의 기준에 ‘깡’이었다. 최종 순위는 공동 10위로 나쁘지 않은 위치였지만 세플러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의 투어에서 비길 데 없는 볼 스트라이킹을 자랑하는 세플러는 그러나 퍼트에 있어선 특별한 선

수가 아니었다. 이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올해 퍼트 고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대회부터 그랬다. 1월 더 센트리. 타이거 우즈 이후로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에 뽑힌 첫 사례라는 타이틀을 등에 지고 출발한 세플러다. 2022~2023시즌 23개 대회에서 2승을 올렸고 톱25에 들지 못한 대회는 단 2개였다. 2024시즌의 첫 대회도 36홀 선두였다. 하지만 3·4라운드에 그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공동 5위로 마쳐야 했다.

“사람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단 생각에 너무 지배 당했어요. ‘너무 잘치고 있어’ ‘매주 우승하는 거 아냐’ 이런 말들요. 그래서 안 풀리면 더 크게 실망했나 봐요.”

2월 AT&T 페블비치 프로암도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으나 마지막 3라운드(약천후로 54홀로 축소) 때 퍼트 난조에 발목 잡히면서 공동 6위로 마감했다. 이어진 피닉스 오픈 때는 3라운드 마지막 홀 퍼트를 그린을 넘겨 버거까지 보내는 실수가 나왔다. 버디가 보기가 됐다. 백 나인에서 나온 쇼트 퍼트 미스만 3개. 공동 3위 성적에도 세플러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 상태로 제네시스 대회에 나선 거였다. 계속되는 퍼트 악몽에 세플



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부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음의 방향을 살짝 틀었을 뿐인데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퍼트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승-우승-공동 2위-우승-우승. 제5 메이저 플레이어 챔피언십과 메이저 중의 메이저 마스터스를 포함해 한 달여 사이에 4승을 쓸어 담은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수렁을 더 깊이 파는 것처럼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마리는 찾아오는 모양이다. 아주 평범했던 식사 자리가 위대한 시즌의 출발이 됐다.

그 후로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다. 플레이어 챔피언십 땀 목 부상으로 힘들었고 마스터스 1라운드 뒤엔 코스를 떠나면서 “이런 스윙으로 남은 3일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파리 올림픽 최종 라운드 백 나인에 들어서면서는 “퍼터를 부숴버릴까”라고 캐디에게 하소연하

게는 우승하든 컷 탈락하든 있는 그대로의 세플러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페인은 “부모님과 캐디, 아내, 코치가 세플러를 바로 세운다. 그는 우승을 늘 바라는 선수지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우승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투어 7승 등 주요 대회 9승으로 ‘24년’을 자신의 숫자로 만든 세플러는 새해 여섯 번째 시즌에 나선다. 투어 통산 13승이니 20승을 새해에 채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투어 데뷔 후 우승 없이 70개 대회를 보내던 그 시기를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세플러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세플러를 지지하지 않을까.

지금 당신 곁을 지키는 당신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동시에 당신은 누군가가 언제든지 간길 수 있는 넉넉한 품일지도 모른다. <양준호 기자>



# 이제는 더 이상 연주하지 못하는 Keith Jarrett과 이미 고인이 된 두 명의 또 다른 거장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끝판왕!



천재적 리듬감의 피아노와 스윙감 넘치는 더블 베이스 매우 절제되었지만 터질때는 터져주는 드럼 연주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가장 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서있는 이 트리오의 모든 걸 보여준다...

1992년 9월의 어느날 피아니스트 Keith Jarrett은 자신의 고향에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펜실바니아 주의 Deer Head Inn이라는 곳에서 한 차례 공연을 가졌다.

Deer Head Inn은 19세기부터 존재했다는 매우 유서깊은 재즈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날밤 공연에는 자신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명 베이스 연주자인 Gary Peacock, 그리고 Keith Jarrett Trio의 원래 드러머인 Jack DeJohnette가 아닌 16년 만에 만나서 연주하게 된 베테랑 드러머 Paul Motian과 함께 였다. 젊은 시절 Keith Jarrett이 처음으로 재즈 뮤지션으로 연주를 시작했던 장소에 이제는 '거장'이 되어 돌아와 역시 거장들인 동료 뮤지션들과 매우 특별한 공연을 했던 것이다. 이날의 공연은 1994년 ECM 레이블을 통해 [At The Deer Head Inn]이라는 타이틀로 앨범으로 발매되어 '재

즈 피아노 트리오의 끝판왕!'이라는 극찬을 받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ECM사는 2024년 11월 (공식 발매는 8월이라고는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기 시작 한 건 11월 부터였

다)에 그때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음원들을 [The Old Country (More from the Deer Head Inn)]라는 타이틀로 후속 앨범을 내놓았다.

전작에 비해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레퍼토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듯 해서 꼭 소개해 보고 싶었다. 물론 전작 앨범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드는 의문은 이렇듯 버릴 곡이 없는 레코딩들이라면 애초에 왜 더블앨범으로 발표하지 않았을까?...



Deer Head Inn 공연의 첫 번째 앨범인 [At The Deer Head Inn]에서는 우선 'Chandra'를 권하고 싶다. 천재적인 리듬감의 피아노와 스윙감 넘치는 더블 베이스, 그리고 매우 절제되었지만 터질때는 터져주는 드럼 연주가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가장 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서있는 이 트리오의 모든 걸 보여준다. 도입부에 Keith Jarrett의 서정적인 즉흥연주가 나오고 뒤이어 귀에 익은 곡의 주제 부분이 나오고 뒤이어 그 주제를 재즈적으로 변주하는 전개부가 나오며 이어서 멤버들의 솔로 연주가 이어지고 다시 주제부분이 나오면서 마무리 되는 것이 물론 그 순서가 변경된 경우도 있지만 이 공연의 '기본틀'이다. 그 기본틀에 충실한 'Bye Bye Blackbird'도 추천하는 곡이다.

앨범의 끝곡을 장식하는 발라드 'It's Easy To Remember'도 빼놓을 수 없다. 2024년도에 발표된 두 번째 앨범인 [The Old Country (More from the Deer Head Inn)]에서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를 우선 먼저 추천한다. 앞서 언급한 그 '기본틀'이 이 곡에서도 적용되어 있다. 도입부의 상당히 긴 서정적인 즉흥연주가 매우 인상적인 'I Fall In Love Too Easily', 들을 때마다 Thelonious Monk의 천재적인 송라이팅에 감탄하게 하는



'Straight No Chaser', 재즈적인 스윙감과 원곡의 멜로디가 좋은 'The Old Country' 등등 오히려 첫 번째 앨범보다 더 듣기 편하고 좋은 곡들이 더 많은 느낌이다.

1945년 생으로서 올해 80세가 되는 Keith Jarrett은 지난 2018년도부터 두 차례의 '중풍'으로 인해 왼손에 꽤 심각한 마비가 와서 더 이상의 연주는 불가능 해졌다고 한다...! 세월의 야속함에 허탈감이 몰려 온다.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예전부터 그가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최근까지 앨범들이 꾸준히 발매되길래 잘 극복하고 있나보다 생각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가 새로 레코딩한 앨범들이 아닌 그의 예전 레코딩들 중 미발표 레코딩들을 발매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 레코딩에 참가한 베이스 연주자 Gary Peacock은 지난 2020년 세상을 떠났고 드러머 Paul Motian은 이미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ECM사에서 이들이 남긴 귀중한 레코딩을 이렇게 발표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야 할 것이다!

frisell66@gmail.com



박기한  
음악칼럼니스트





김희란 Lic.#0125013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 내 앞의 문턱을 넘어서기

자원봉사자와 함께 고행길에 나서지만, 야생마같은 범치청소년들은 처음엔 내가 왜 고통스러운 걸기를 해야하나 하며 강한 저항과 거부감을 가지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차츰 순응하며 적응해 나간다.

동반자와 걸으면서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회적장벽을 넘을수있다는 자신감과, 차츰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기 시작하며 자기존엄성을 회복하게된다. 매사에 적대적이던 그들이 걸기를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둔다. 보통 수감자들의 재범률은

85%에 이르나 쇠이유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15%로 떨어졌다. 즉 85%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새삶을 살게된 것이다. 비용또한 교도소 비용의 30% 정도로 저렴하다. 이 “쇠이유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백두대간 종주를, 비행청소년 교육과정에 접목시켜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기도 어느 고등학교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한국 청소년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심각하다.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손쉬운 음주 및 약물 접근등으로 탈선을 부추겨 왕따나 만연한 학교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를 고민하던 한 교사의 열정이 백두대간 종주를 문제학

생들에게 의무화시킨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들이 달라진것이다.

자연속에서 땀흘리며 걷는동안 자신에대한 성찰과 400km 백두대간 종주코스를 완주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자신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배우며 문제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에 고무된 학교는 전교생에게 확대실시하며 졸업전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 교육의 성공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산하 학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걸기를 통한 작은 기적은 이어져서, 2024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8명이 청소년 보호치료시설로 지정된 가톨릭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서 시행한, 백두대간 400 km 종주를 저명한 여러 산악인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마치며, 걸기를 통한 문제 청소년 교육과정의 사회적인 공감과 제도적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한때에 자원봉사에 동참해서 기뻐하는 어느 산악인의 후일담에서 삶의 작은 희망을 본다.

“쇠이유(Seuil)”는 프랑스어로 경계, 문턱 이라고한다. 그 의미가 예사롭지않다. 견고한 편견의 문턱을 넘어야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기성세대가 훈계조로 얘기하는걸 못마땅해하는 젊은이들이 비아냥대듯이 내뱉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표현을 들으면, 나역시 그들의 눈에는 편견에 갇힌 끈대는 아닐까. 모

든 갈등의 저변에 적지않은 편견이 자리하고 있을텐데, 우리는 그 편견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 아이들조차,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방향성이 가끔씩 어긋나보이고 못마땅한것 역시, 나의 편견에서 비롯된건 아닐까?

생각하면 좀은 두렵기조차 하다. 그러다 최근에 읽은 글중에 무릎을 치며 공감한 내용이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학교수업도 빼먹고, 빈둥거리고, 예의가 없으며 자기 중심적이고 선생님과 부모님을 공경하지않으며 나약하기 짝이 없어 그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듯한 이 내용은 놀랍게도 기원전 1700년전, 즉 지금으로부터 무려 3700년전에 인류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고대 수메르인의 점토판에 새겨진 내용이다.

자식이 속삭이며 부모의말을 안듣는것은 3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마 그때의 학생들도 오늘날과 비슷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을것 같다. 옛 현인들의 예측에 따르면 젊은세대가 갈수록 나약해지고, 멍청해지고 이기적이므로, 세상은 진작에 망했어야 마땅하겠지만 세상은 여지껏 망하지 않았고 점점 발전을 거듭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잘 굴러왔다. 엄연한 이 사실에 위안 삼으며 우리집 아이들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310-912-1783

세계적인 걷기운동가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설립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후원하는 “쇠이유(Seuil)” 프로그램이 있다. 소년원에 수감중인 청소년들이 3개월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포함 총2000km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교정 프로그램이다. 판사의 동의하에 각서를 쓰고

세상은 여지껏 망하지 않았고 점점 발전을 거듭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잘 굴러왔다. 엄연한 이 사실에 위안 삼으며 우리 아이들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 시니어 생활 상식

### 메디케어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는 3개월 마다 명세서를 받아서 수표로 내시거나, 명세서 아래쪽에 있는 칸에 크레딧카드 정보를 적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매달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dmission [ədmiʃən] 어드미션

1. 입원 2. 입학 3. 인정 4. 입장 5. 승인

Would you explain the rules for admission?  
입원 규정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더 자세한 문의 (213)387-6505, (714)690-1300



## 한국TVH 매거진

### 편하게 보세요!



1.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http://radioseoul1650.com) 중간 기사에 H매거진 배너 클릭해서 본다.
2.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http://koreatimes.com)에서 상단 카테고리 섹션에 한국TVH매거진을 클릭해서 본다.
3. 휴대폰에서 한국일보USA 앱을 다운 받아 뉴스클릭 후 한국TVH매거진 로고를 클릭해서 본다.
4. [mkh@tvhankook.com](mailto:mkh@tvhankook.com)으로 이메일 구독 신청

구독 · 광고문의 323 692 2071



## 나음 한의원의 생로병사 생명의 근원 : 피<2>



고기연  
원장

저번 시간부터 혈액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고 생명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혈액의 개념과 또 혈액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점들이 있는지 살펴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혈액은 단순한 생리적 물질을 넘어, 인체의 에너지 순환과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혈액은 한의학에서 "혈"이라고 표현하며, 기와 함께 인체의 건강과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 1. 한의학에서 혈의 개념

혈은 생명 활동의 물질적 기초: 혈은 기와 더불어 신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장기, 근육, 피부를 보호합니다. 기가 혈을 운반하고, 혈은 기가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정과 밀접한 관계: 혈은 신장에서 생성된 정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혈은 정을 물질화한 형태이며, 정과 함께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 2. 혈의 주요 기능

(1) 영양 공급: 혈은 인체의 조직과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2) 운반하게 함: 혈은 신체를 운반하게 하여 피부, 머리카락, 눈 등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혈 부족이 발생하면 피부 건조, 탈모, 눈의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정신 안정: 혈은 정신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이 충분하면 정신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혈 부족 시 불안감, 불면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3. 한의학에서 혈액 순환 장애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1) 혈허: 혈 부족  
원인: 영양 부족, 과로, 출혈 등.

증상: 어지럼증, 피부 건조, 안색 창백, 손발 저림, 생리 불순.

치료: 보혈 작용이 있는 약재(당귀, 숙지황 등)와 음식을 통해 혈을 보충.

(2) 어혈: 혈 정체

원인: 외상, 스트레스, 혈액 순환 장애.

증상: 국소 통증, 멍, 피부 변색 및 가려움증.

치료: 활혈화어 작용이 있는 약재(단삼, 홍화, 천궁 등) 사용.

(3) 혈열: 혈의 과열

원인: 과도한 스트레스, 열성 질환, 염증.

증상: 코피, 피부 발진, 두통, 갈증.

치료: 청열 작용으로 혈액의 열을 내리는 약재(생지황, 연교 등) 사용.

4. 혈을 관리하는 방법

(1) 식습관: 보혈 음식: 검은콩, 검은깨, 당귀, 대추, 숙지황 등.

혈액 순환 촉진 음식: 생강, 계피, 홍화차.

(2)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적절한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간과 심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명상, 심호흡, 휴식을 통해 기와 혈액의 순환을 원활히 유지합니다.

(4) 침, 팔사, 부항 치료: 한의학에서는 침, 팔사, 부항 등을 통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어혈을 제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이 풍부하고 원활히 흐를 때 건강과 균형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혈에 대한 관리와 치료는 한의학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 657-325-4000  
naumacupuncture@gmail.com

## NHS 건강 정보

# 2025년 건강한 시작을 위하여



스티븐 조  
NHS GOLD R&D Inc  
대표 뉴트리셔니스트

2025년 신축년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결심을 세우곤 한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아이디어와 함께, NHS 강황밸런스 850이 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 건강한 다짐의 시작

새해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면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건강한 새해를 위한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다짐이다:

- 균형 잡힌 식단:** 가공 식품과 당 섭취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선택하자.
- 규칙적인 운동:** 잠자기 전과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되는 동작으로 시작해 보자.
- 충분한 수면:** 저녁 취침 시간을 정해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잠드는 것을 목표로 하자.
-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황에서는 깊은 호흡을 10번 반복하여 마음을 가라앉혀 보자.

### NHS 강황밸런스 850과 함께 하는 건강한 선택

강황은 전통적으로 항염 및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 특히, NHS 강황밸런스 850은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건

강 증진에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NHS 강황밸런스 85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자랑한다:

- 고품질 원료:** 순도 높은 강황 추출물과 그린티, 산삼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
- 과학적 검증:**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강황의 항염 및 항산화 효능이 입증되었다.
- 하루 한 번의 간편한 섭취:**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 새해 건강을 위한 좋은 시작

이미 NHS 강황밸런스 850을 통해 많은 사람이 건강한 변화를 경험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몸의 기초 건강인 소화, 흡수, 순환 등 모든 신진대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3가지 조합, 강황, 산삼, 그린티의 강황밸런스 850은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2025년 건강의 초석이 될 것

이다. 이번 새해에는 NHS 강황밸런스 850과 함께 건강한 다짐을 실천해 보자.

2025년이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 보자.

NHS 강황밸런스 850이 그여정에 힘이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한다.

▲ 213-905-0439  
iswjo@yahoo.com



# 통증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침과 부항요법, 추나요법, 팔사요법, 골타요법, 근육, 관절 교정으로 구조적 이상을 제거해서 만성통증 질환과 내과질환, 신경계 질환까지 치료합니다.

진료 :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경력 : 중국 북경 중의약 대학 졸업  
중국 북경 동직문 병원 인턴, 레지던트 근무.

보험 : 각종보험 취급.



나음 한의원

(657)325-4000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문 :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하듯이, 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있어 중요한 것 또한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비보호'),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right of way)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먼저 가라고 양보해 준 두 사람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불이나 노란 불이 아닌 빨간 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4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톱 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톱 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우리 손님 가운데 LA 남쪽에서 웨스턴 애버뉴 남쪽으로



알렉스 차  
Personal Injury

직진하던 중 스톱 사인이 있는 106가에서 진입한 차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직진하던 차량이 진입하던 차의 옆을 치었지만, 과실은 분명 진입하던 차에 있습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Rear-end collision)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등(brake lamp)에 결함이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과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규칙(rule)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운행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13-351-3513  
www.alexchalaw.com



## 생활정보 비즈니스

## 웨스턴 도마 칼국수

# LA 최고 맛집 '웨스턴 도마 칼국수'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이 그리울 때 오세요"

### ▶ 요리 하나하나에 맛과 정성... 미식이 '문전성시'

지난 20 여년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식당이 있으니 바로 LA 한인타운 웨스턴가에 위치한 '웨스턴 도마 칼국수'(대표 백미옥)다.

웨스턴 도마 칼국수는 한인 미식가들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요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맛이 있고 양도 푸짐하다.

웨스턴 도마 칼국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백미옥 대표가 직접 주문을 받고 서빙까지 해준다. 백미옥 대표의 인심도 푸짐해 단골들

에게는 맛배기 요리가 서비스로 나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웨스턴 도마 칼국수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별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어 좋다. 우선 대표적인 메뉴로 은대구 조림을 빼놓을 수 없다. 싱싱한 은대구가 무와 고추, 야채, 떡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밥도둑'이 따로 없다.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아구찜은 웨스턴 도마 칼국수의 4대 해물 요리로 한 번쯤은 꼭 시식을 할 것을 권한다.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직장인들의 회식 요리로 인기가 많은 닭도리탕과 해물파전, 곱창전골도 강력 추천한다. 삼겹살 고추장 볶음과 오징어 볶음, 잡채, 소갈비구이와 철판 불고기, 돼지불고기 등이 웨스턴 도마 칼국수의 '특선요리' 리스트를 완성한다.

식당 이름처럼 칼국수는 국물 맛이 깊고 면발은 쫄깃쫄깃하다. 닭 칼국수, 바지락 손

칼국수, 해물 칼국수, 짬뽕 칼국수, 만두 칼국수 중 선택할 수 있다. 면을 좋아한다면 칼국수 외에도 열무국수, 비빔국수, 멸치 마당국수, 쫄면, 메밀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냉콩국수, 수제비 등 다양하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식사 메뉴도 다른 식당에서 찾을 수 없는 맛있는 요리들로 가득하다. 고등어 또는 콩치 김치찌개, 떡배기 육개장, 김치콩나물국, 삼계탕, 동태찌개, 알탕,



아구탕, 닭개장, 돌솥비빔밥, 김치잡채 돌솥밥등이 있다.

웨스턴 도마 칼국수는 주류 일체를 구비하고 있어 각종 회식과 가족, 지인들과의 모임 장소로 인기가 높다. 주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있어 문 닫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영업시간:  
주 7일 오전 10시~ 밤 10시



▲ 전화 : (323)871-1955 ▲ 주소 : 429 N. Western Ave. #10, LA



# ☆ 그때는 무슨 일이?

# WHEN IT WAS 1984

**1월 1일** : AT&T의 22개 소유 벨 시스템 기업, 8개 기업으로 분사.

**1월 1일** : 브루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1월 1일** : 뉴욕 교통 요금이 75센트에서 90센트로 인상됩니다.

**1월 1일** : 브루나이 왕실의 본거지로 20만 평방미터가 넘는 면적에 이스타나 누를 이만 국가원수의 세계 최대 거주지가 완공되었습니다.

**1월 2일** : 13번째 피에스타 볼 : #14 오하이오 주립대, 피츠버그 15위, 28-23으로 승리

**1월 2일** : 16세의 미래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스트 크리켓 타자 대릴 컬리넨이 이스트 런던에서 열린 나탈 B와의 보더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1등급 센추리(106번 없음)를 기록했습니다.

**1월 2일** : 70회 로즈볼: UCLA, 일리노이 4위 45-9로 승리.



**1월 2일** : 무하마드 부하리 소장, 군사 쿠데타 후 나이지리아에서 국가 원수로 선언됨.



**1월 2일** : 튀니스 폭동으로 100명 이상 사망

**1월 2일** : 월슨 굿, 필라델피아 최초의 흑인 시장 취임.

**1월 3일** : 시리아, 제시 잭슨의 항소 끝에 체포된 미국 조종사 석

**1월 3일** : 코미디 작가 라인홀드 와이지가 제작한 해리 앤더슨 주연의 1월 4일 "나이트 코트"가 NBC TV에서 첫 공개되며 9시즌 동안 방영됩니다.

**1월 6일** : 챌린저호가 STS 41 B 임무 교미를 위해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 센터의 차량 조립 건물로 이동합니다.



**1월 7일** :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여섯 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1월 8일** : NCAA는 농구 토너먼트에 64개 팀이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9일** : 브레이브스 투수 파스쿠알 페레스,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됨.

**1월 10일** : 미국, 약 117년 만에 바티칸과 완전한 외교 관계 재개.

**1월 11일** : NASA 우주왕복선 STS 41-B가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1월 14일** : 마돈나가 처음으로 아메리칸 밴드스탠드에서 "Holiday"를 부릅니다.



**1월 14일** : 레이 맨시니가 네바다주 리노에서 바비 채컨의 3라운드 TKO 특점으로 WBA 라이트급 타이틀을 유지합니다. 채컨은 너무 심하게 난타당하여 경기를 중단시킨 리처드 스틸 주심에게 경기 종료 후 감사 표시를 합니다.



## H-Trash

### 버리고 싶은 것들

때는 골프치기 딱 좋은 어느 가을날 오전. 남가주 밸리지역에 오랫동안 한인 골퍼들의 명소로 자리잡아온 놀우드 골프장(Knollwood Country Club). 5명까지 한 그룹(썸)으로 칠 수 있는 골프장이어서 다른 골프장에 비해 좀 밀리는 편이다.

이른 아침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1번홀 티샷을 멋지게 날리고 페어웨이 중간에 서있다. 앞 조가 아직 그린위에서 퍼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어웨이 우드를 꺼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때에 골퍼공이 내 바로 앞을 지나 떨어진다.

"뭐야 이거?, 아니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티샷을 치면 어떡해?" 생각보다 멀리 나갔든 아니든 이런 개갈고 위험한 골프 매너는 골프장 마살을 불러 퇴장을 시켜야 한다.

함께 치는 사람들이 "저 미친X 아냐? 아니 FORE 포어!!! 라고 콜도 안해?" 세컨샷들을 친 같은 그룹 사람들이 그린으로 이동하면서 뒷팀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한국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랬건만... 바람과 달리 한국 아저씨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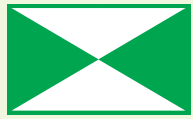
었다. 우리가 말을 먼저 한다. "아니 그렇게 볼을 치면 어떡해요? 콜도 안하시고?"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 왜 거기 서있어요? 안보여서 앞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았는데... 샷들이 엄청 짧으신 모양이네 허허허... 애니웨이 미안해요." 장타자 닌네. 챔피언 탄생이야... 이런 나쁜 매너와 말 뿐새 가진 골퍼들은 골프장에 오지 않습니다. 그 매너 휴지통에 좀 버립니다!!!

H 쓰레기통 코너에서는 몰상식한 행동들은 하지 말고 기본 예절은 좀 지키고 살자는 취지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mkh@korea-times.com으로 이메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골프장 진상 <2>







# 주간한국/기/획/광/고

광고문의 (323)692-2100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 검안의 -  
**미셸 김** *Michelle Kim O.D.*



LA점 (로데오갤러리아) 213.384.1001 · GG점(하마트몰내)714.530.1001 \*일요일은 쉽니다

유니버  
굿 프렌드 보험  
INSURANCE SERVICES



t 213.388.7979

**진 발레스쿨**  
Welcome Back to Jean Ballet School

한미무용연합회 후원  
꿈나무 발레리나 인재양성 특별 프로그램

발레 · 아크로바틱  
3개월 12주 과정

발레를 사랑하시나요?  
LA 나빌레라,  
발사모 성인 취미 실버발레로 오세요.

바가노바 메소드 발레 전문기관,  
취미부터 전공까지 체계화된 프로그램 운영

CLASS  
\* Mom and me Baby Ballet  
\* Ballet Fit \* Acrobatics  
\* K-POP \* Ballet Dance  
\* Tap \* Worship \* Belly  
\* Korean Dance \* 성인 취미발레  
소수 정원제

www.koalldance.org  
www.balletjean.com  
TEL 323-428-4429

27년  
경력  
각종  
보험  
취급

[鍼]신비의 침술  
東醫漢醫院  
Dong-Ui Chinese Clinic  
(213)558-2020  
1832 Crenshaw Bl. L.A., CA 90019  
www.Donguiclinic.com

한의원 李英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것**

꼭 부러지고 친절한 **켈리 송!**  
모든것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가입으로  
끝나는것이 아닌 모든 혜택을 하나하나  
찾아서 끝까지 도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65세가 되시는 분
- 여러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 처방약 혜택 체크
- 직장보험에서 나오신 분
- 타 주, 타 카운티에서 오신 분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켈리(희정) 송 (213) 999.6135 (714) 356.4664  
CA Lic. #0K39883 |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노래방 머신은 **애프터서비스와 신곡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전문점에서 구입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노래방 역사 34년만에  
새로운 진화  
태진 가정용 노래방 신제품 **TKR-370HK**

태진 **업소용 노래방 머신 P2**  
최고급형 YouTube 노래방

연말연시 크고 작은 파티에 노래방 시스템을 저렴하게 렌트해드립니다

음악커넥션 -Music Connection- 987 S. Vermont Ave. #B Los Angeles, Ca 90006  
Call Order: (213) 385-0202

흑염소 100% 진액 진명품 중의 명품  
타주 배송가능/타운내 달리버리 가능

**대관령 흑염소 농축** 보약 명가

프리미엄  
**흑염소 농축** \$300 1Box/60포

프리미엄  
**녹용 대보탕** \$350 1Box/60포

프리미엄  
**녹용 흑염소** \$400 1Box/60포

213.910.0083 | 213.249.4099  
401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흥래각**

LA 최고의  
**짜장면**  
Black Bean Noodles  
플-깃한 면발  
한국의 고향 옛날짜장 맛  
\$6.99

**해물가득짬뽕**  
가격이 반으로  
지대보다  
맛은 두배로  
지대보다  
\$9.99

(213)383.0178  
357 S Western Ave # 102, L.A, CA 90020  
달리버리 합니다. TOGO 전문

풀러튼 · 세리토스 · 부에나파크 · 사이프러스 · 라팔마 · 엘바인 OC · LA 전지역

**Super Star Carol 케롤 리**

| 리스팅 전문, 투자 안내 및 상담  
| 무료 감정/무료 리스팅 광고  
| 무료 터마이트 검사

DRE# 01966905

LA (213) 562-4949 OC (714) 345-4989  
caroleleerealty@gmail.com 7800 Commonwealth Ave., #201A, Buena Park, CA 90621

**신비의 침술, 놀라운속도**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품을 체험해 보십시오.

김용석  
한의원 LA 323.733.8814 OC 714.522.8818



# ‘다저스행’ 김혜성, 자이언츠 이정후와 MLB 대결



## 김혜성의 다저스와 이정후의 자이언츠는 정규시즌에 13번 맞대결

김혜성(25)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한국 야구팬을 위한 볼거리도 늘었다.

계약과 동시에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김혜성이 경쟁을 뚫고 26인 로스터에 진입하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함께 꿈을 키우던 친구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빅리그 절친 대결’을 벌일 수 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다저스 구단은 4일(한국시간) “유틸리티 플레이어 김혜성과 3년 1천 250만달러(약 184억원), 2028년과 2029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김혜성과 다저스가 3년 뒤에 ‘+2년 연장 계약’에 합의하면 김혜성의 계약 규모는 최대 2천200만달러(약

324억원)로 늘어난다.

다저스는 MLB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에 속했다. 같은 지구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는 이정후가 있다. 이정후는 2024년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천300만달러의 대형 계약을 했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2025년 MLB 정규시즌에서 총 13차례 맞대결한다.

6월 14~16일에 다저스의 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3연전을 벌이고, 7월 12~14일과 9월 13~15일에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오라클파크에서 두 번의 3연전을 치른다. 9월 19~22일에는 다저스타디움에서 4연전을 펼친다.

시범경기는 3월 2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치에서 한 차

를 편성돼 있다.

1999년 1월에 태어난 김혜성과 1998년 8월생인 이정후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다.

2017년 이정후가 1차, 김혜성이 2차 1라운드에서 키움에 지명되면서 둘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이정후는 데뷔 첫 해(2017년) 신인왕에 오르고, 2022년에는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는 등 일찌감치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7시즌 동안 타율 0.340, 65홈런, 515타점, 69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898을 올리며 KBO리그를 지배한 이정후는 2024년 대형 계약을 하며 빅리그로 직행했다.

이정후만큼은 아니지만, 김혜성도 4시즌 연속 골든글러브(2021~2024)를 수상했고 ‘국가대표 내야수’의 입지도 굳혔다. 김혜성의 KBO리그 통산 성적은 타율 0.304, 37홈런, 386타점, 211도루, OPS 0.767이다.

빅리그 진출을 추진하면서 김혜성은 이정후를 만나 조언을 듣기도 했다. ‘스타 군단’ 다저스에 입성한 김혜성에게 첫 시즌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어깨를 다쳐 단 37경기만 출전한 이정후도 2025시즌을 버르고 있다.

MLB닷컴은 4일 2025시즌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목할 선수로 이정후

를 꼽으며 “이정후는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팀의 주전 중견수로 복귀해 1번 자리를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이정후가 뛰어난 콘택트 능력으로 팀 공격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팬그래프닷컴은 이정후가 올해 143경기에서 타율 0.294, 14

홈런을 올리고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WAR) 4.1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패트릭 베일리(4.4) 다음으로 높은 WAR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한 해’를 준비하는 김혜성과 이정후의 빅리그 맞대결이 성사되면, 코리안 빅리그 역사는 더 풍성해질 수 있다.



## NFL 슈퍼보울 우승은 어느 팀이?

2025년 2월 9일 일요일에 시저스 슈퍼돔에서 개최 되는 슈퍼보울 최종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까?

### SUPERBOWL LIX 경기 정보

날짜 : 2025년 2월 9일 일요일

위치 : 뉴올리언스

하프타임 공연 : 힙합 가수 켄드릭 라마



### 2025 NFL 플레이오프 팀 파워 랭킹

- |                          |                          |
|--------------------------|--------------------------|
| 1. Kansas City Chiefs    | 8. Los Angeles Chargers  |
| 2. Buffalo Bills         | 9. Los Angeles Rams      |
| 3. Philadelphia Eagles   | 10. Green Bay Packers    |
| 4. Detroit Lions         | 11. Pittsburgh Steelers  |
| 5. Baltimore Ravens      | 12. Denver Broncos       |
| 6. Minnesota Vikings     | 13. Tampa Bay Buccaneers |
| 7. Washington Commanders | 14. Houston Texans       |



## 2025년 시즌 MLB 예상 순위 TOP10

**1. LA Dodgers :** 두 번의 사이영상 수상자인 블레이크 스넬을 로테이션에 추가하고(워커 볼러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재 계약하는 한편, 외야 좌익수에 뉴욕 메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마이클 콘포르토를 추가하여 무키 베츠가 유격수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KBO 김혜성 9내야수) 선수를 계약하면서 그 동안 공들였던 개빈 렉스를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 해 한인 야구팬들이 한국인 김혜성 선수의 플레이를 볼 chance가 많아져 기대 된다.

**2. Philadelphia Phillies :** 미네소타 트윈즈에서 외야수 맥스 케플러 영입, 후반전에 부진했던 조던 로마노가 불펜에 합류.

**3. New York Yankees :** 선발 로테이션 투수 보강이 절실했는데, 아틀란타 브레이브즈 에이스 맥스 프리드 영입으로 에이스 게릿 콜의 부담을 덜어줌.

**4. New York Mets :** 후안 소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선수 영입, 또한 선발투수 셴 마네야를 데려와 로테이션에 큰 도움.

**5. Atlanta Braves :** 시즌 오픈 전까지 불펜투수 영입에 총력 중

**6. Baltimore Orioles :** 에이스 가 될 수 있는 투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영입.

**7. Arizona Diamondbacks :**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인 선발투수 코빈 번스 영입으로 메릴 켈리, 조던 몽고메리,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로 이어지는 안정된

마운드 구축.

**8. Boston Red Sox :**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데려온 가렛 크로세와 LA다저스 워커 볼러가 로테이션 전면엔 합류하면서 레드삭스가 올 겨울 가장 발전한 팀으로 부각.

**9. San Diego Padres :** 자유계약 선수인 김하성과 주릭스 프로파의 로스터에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인 팀.

**10. Cleveland Guardians :** 잠재적인 선발 투수 몇 명과 애리조나의 슬레이드 세코니를 영입했다. 세인 비버와 재계약하고 베테랑 투수 카를로스 산타나를 데려와 투수진을 보강한 것이 눈에 띈다. 항상 파이팅이 넘치는 근성이 있는 팀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예상 팀이다.



DJ 지미킴의 이 노래 한 곡

**The Young Ones**

Song by Cliff Richard



역대 전 국민이 때 창 하였던 노래 Best 10에 Rank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이다.

인도 출신 Cliff Richard와 The Shadows 출연한 코믹 청춘 물 영국 영화 The Young Ones가 상연되고 동명 영화 주제가는 1962년 50만장 이상 선주문 받으며 영국 싱글 차트 1위로 세계적으로 260만장이 판매 되었다.

Asia에도 그의 열풍을 받아 대만, 일본, 한국 등에 Tour를 떠나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은 1964년 스카라 극장 (옛날 수도 극장)에서 영화가 상연 되고 1969년 10월 17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공연을 펼쳤는데 공연장을 찾은 여학생들이 속옷 펜티를 무대에 집어 던지고 악도 쓰고 실신도 하고 당시 시대적으로 앞선 이들의 해프닝

이 던진 문화적 충격은 여러 언론에서 망국 행위로 지탄 받았었다.

그리고 업자는 이를 모든 실황을 녹음하여 LP판을 판매 하였는데 여기에 녹음된 악 쓰던 여학생들은 모두 70대 Senior일 텐데 그분들이 지금 이 노래를 들으시면 정말 감개무량 할 것이다.

지금 그의 나이 84세 1995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Jimmy Kim 은 매주 금요일 라디오서울 인기프로 “탱자의 차차차” (오후 3시~5시 방송)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여 여행, 잡다한 사는 얘기 그리고, ‘이 노래 한곡’에 소개된 곡을 소개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The young ones**

**Darling we're the young ones**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젊어요

**And the young ones shouldn't be afraid**

**To live love**

**While the flame is strong**

**cause we may not be the young ones very long**

젊은 사람이라면 젊음의 불꽃이  
강하게 타오르는 동안은 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는 않으니깐요

**Tomorrow**

**Why wait until tomorrow**

**cause tomorrow sometimes never comes**

내일, 왜 내일까지 기다리나요  
왜냐하면 내일은 때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So love me**

**There's a song to be sung**

**And the best time is to sing**

**it while we're young**

그러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기에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입니다

**Once in every lifetime**

**Comes a love like this**

**Oh I need you and you need me**

**Oh my darling can't you see**

일생에 한번 이런 황홀한  
사랑이 찾아와요  
아~ 난 그대가 필요해요  
그대에겐 내가 필요하고  
아~ 내 사랑 모르시겠어요

**The Young dreams**

**Should be dreamed together**

**And the young hearts shouldn't be afraid**

**And some day when (while)**

**the years have flown**

**Darling then we'll teach**

**the young ones of our own**

우리 젊은 꿈들을 함께 합시다  
젊은 가슴은 두려워해서는 안돼요  
언젠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대여 그 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LUTEIN ZEAXANTHIN / ANTOCIANIN OMEGA3

MARIGOLD & ACAIBERRY



더 확실하고 강하고 더 좋다

- ✓ 안구 건조증 황반변성 노안 근시 난시 BLUE LIGHT 차단
- ✓ 콜레스테롤 혈관건강 심장
- ✓ 피부미용
- ✓ 위건강
- ✓ 면역력 강화



BERRYLAND  
fresh and delicious

비싸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213)655-3300

OC 부에나팍 한남체인몰내  
LA 올림픽 갤러리아마켓 몰내



어머니가 해주신 집 밥이 그리울 때...  
 도마 아줌마가 맛나게 해주는 밥 한 끼 먹으러  
**웨스턴 도마 칼국수**로 간다!



은대구조림



닭도리탕



해물파전



아구찜



갈비구이



비빔밥



삼계탕



열무국수



뚝배기 불고기



떡만두국

**웨스턴 도마 칼국수** Tel. (323) 871.1955

영업시간: 10 am ~ 10 pm  
(7 Days Open)

429 N. Western Ave, #10  
Los Angeles, CA 90004

Western Doma Noodles

TOGO 가능 합니다.

Rosewood Ave



도마 칼국수

Beverly Blvd

Western Ave



# “OTT 오리지널만이 정답 아냐”



MBC TV 금토극 '지금 거신 전화는'은 국내보다 해외 반응이 뜨거웠다. 시청률은 5~8%대로 높지 않았으나, 넷플릭스 세계 TV쇼 부문 2위까지 찍었다. 12·3 계엄 사태로 결방이 잇따르자, 해외에선 노트북을 던지는 '맘'(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퍼졌다.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 대사가 오글거렸지만, K로맨스의 순애보로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유연석(40)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40만명에서 420만명으로 약 2배 뛰어 올랐다. 처음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강해 고민했으나,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후 "안 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좋아라했다. 넷플릭스 등 OTT 등장 후 지상파가 위기를 겪었는데, 이 드라마는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

인다.

“어느 순간 OTT 오리지널만 쫓아가면서 지상파가 침체기를 겪었는데, 이제 조금 바뀌는 것 같다. 해외 플랫폼은 OTT로 가고, 국내는 지상파로 방송하면 국내외 인지도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다. 단순히 OTT 오리지널이 정답은 아니더라. ‘꼭 OTT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고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다면 어떤 플랫폼이든 가리지 않고 싶다. 결국 OTT만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다. 지금 거신 전화는 덕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더 지향해야 우리나라 방송사도 같이 살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정략결혼 3년 차 대화없이 살던 쇼윈도 부부 '백사연'(유연석)·'홍희주'(채수빈)에게 납치범의 협박전화가 걸려오며 시작하는 로맨스다. 극본으로 유치한 대사를 접했을 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 “막상 그 신을 촬영할 때 되니 희주와 관계가 쌓이고 감정도 무르익어서 큰 무리는 없었다”며 “내가 그 감정을 믿고 했을 때 시청자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연이 굉장히 냉철하지만, 코미디, 부드러움 등 다양한 모습을 변화무쌍하게 보여줬다”며 “오히려 코미

디신은 과감하게 하고, 로맨스신은 절절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의 순애보가 통했다. 부부간 소통의 부재가 있었고, 아내에게 차갑게 대하고 대화도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중에 확인하지 않았느냐. 말로 직접 해 오글거리고 유치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이다. 사연이 그런 대사를 해줘서 열광해주지 않았나 싶다. 내가 지금껏 한 캐릭터의 종합선물세트다. 유연석의 필모그래피의 장점을 모은 캐릭터라서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앵커 출신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아 참고한 인물도 있지 않을까. “딱 한 분을 롤모델로 하지 않고 여러 명을 찾아봤다”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나운서를 참고했고, 조금씩 발췌 해 습득했다. 아나운싱은 MBC 전종환 아나운서가 도움을 줬다. 앵커 출신 대변인 특징을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 정보 전달에 입각해 사심을 빼고,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더라. 주관적인 견해를 빼고,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 등을 배웠다”고 귀띔했다.

열살 연하 채수빈(30)과 로맨스 호흡은 만족했다. 킹콩 by 스타쉽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만큼, 작품이 실패하면 위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K로맨스 순애보로 여심 사로잡아  
“유연석 필모 장점 모은 종합선물세트”  
“40대에도 이런 캐릭터 오길...기대감”**

않았나 생각했다”며 뿌듯해했다.

그간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는데, 유독 로맨스 반응이 좋은 이유가 궁금하다. “왜일까요. 자답하기 쉽지 않다”며 웃었다. “로맨스를 좀 많이 하기도 했다. 근래 정통 로맨스도 하고 싶었다. ‘사랑의 이해’는 현실감있는 로맨스였고, 지금 거신 전화는은 K드라마의 왕년의 순애보를 담았다. 요근래 주저한 캐릭터였는데, 해외 팬들은 ‘그래, 우리가 원했던 K드라마야’라며 반겼다. 다양한 장르와 고퀄리티 이야기 홍수 속 소외된 K드라마 순애보를 다뤄서 좋아해주지 않았나 싶다.”

유연석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예능 등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이다.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대만, 태국, 홍콩 등에서 팬미팅을 열며, “남미도 계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스스로 “30대에 진짜 열심히 살았다. 팬들이 ‘유연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했다”고 돌아봤다. “애초부터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누스적인 배우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캐릭터적이거나 선이 굵지 않아서 ‘아예 극과 극을 가자. 양면성을 띤 배우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한 매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젊을 때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면서 나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뭘 던져줘도 어느 정도 소화하고, 결과물을 잘 내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다”고 부

연했다.

“응답하라 1994”(2013)의 ‘칠봉이’로 무명에서 벗어났고, ‘미스터 션샤인’(2018)의 ‘구동매’로 ‘츄데레’(무심해 보여도 알고보면 따뜻한) 사랑을 보여줬다. ‘낭만닥터 김사부1’(2016-2017)의 ‘강동주’로 냉철한 매력도 드러냈다. 실제 성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2(2020-2021)의 “안정원”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싶다. 완벽한 캐릭터인데, 다른 인물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사연은 현대판 동매 같다”며 “40대에도 이런 캐릭터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결과를 방증하듯 사연을 만났고, 불안감에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결혼 생각은 없냐고요? 없는 건 아닌데 아직 짝을 못 만난 것 같다.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 결국 내가 이런 얘기 털어놓고 할 사람이니깐 가장 소통이 잘 돼야 한다. 이번 드라마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 40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다. 더 이상 서툰 연기자로서 안 되고, 팀의 리더로서 부담감을 안고 끌어가야 했다. 한석규 선배가 ‘나이는 자연스럽게 먹어가는 거고, 불혹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더라. 자칫하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잘 버티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조언해주 힘이 됐다.”

## “지금 거신 전화는 안했으면 어쩔 뻔” 시청률 6~8%대 · 넷플릭스 세계 2위



있었다. “부담감을 느끼기 보다, (채수빈이)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천천히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며 “처음에는 조금 냉랭하다가 가까워지는 설정이라서 드라마 호흡대로 촬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로맨스신을 찍으면서 케미스트리가 점점 좋아졌다”고 회상했다.

마지막회 베드신도 화제를 모았다. “굉장히 고민했다. 공을 많이 들여서 찍은 신”이라며 “대화조차 없던 3년 차 부부가 결국 마음을 확인하고, 헤어진 뒤 우여곡절 끝에 재회했다. 그 날 부부의 첫날 밤이고, 드라마 맨마지막에 나오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라서 정말 아름답고 기억에 남았으면 했다”고 털어놨다. “여러 영상을 찾아보고, 희주와 촬영감독, 연출님 의견을 조합해 찍었다. 남미에서 단체 관람한 포스팅을 봤다. 브라질 푸드코트에서 700명이 관람하면서 환호하는 걸 보고 잘 나오지



# 박규영 “핑크가드 가면 속 사투를 벌였어요”

‘오징어게임2’ 강노을 역...군인 출신 탈북민 북에 두고 온 딸 찾기 위해 진행요원으로 참여



“노을은 가면이라는 것과 일관된 줄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얼굴을 내보이고 자신 있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게임’ 시즌 2의 강노을은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극 초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명함을 받기 전까지 모두 그를 새로운 게임의 참가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노을은 게임 참가자들이 입는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아닌 진행요원 핑크가드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 모두의 예상을 꺾었다. 그동안 참가자들의 시선으로만 조망됐던 이 잔혹한 게임은 노을의 등장으로 내부자들까지 세계관을 확장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박규영(31)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작품에 대해 말을 못 하

고 있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소감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많은 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오징어게임 2’는 전편에 이어 세계적인 흥행 기록을 쓰고 있다. 공개 첫 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시즌 2가 전편을 능가하는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박규영은 “(오징어게임이) 아무리 글로벌하다지만 진짜 글로벌한 것 같다”며 “작품이 공개되고 체감할 시간이 많이 갖지 못했는데 기사량이 진짜 어마어마했다.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몇 개국에서 1위를 하고 조회수가 어떤지를 접해서 정말 많이 봐주시는구나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의미있고 감사한 일이다. 당연히 견뎌야 되는 행복 그리고 감사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규영이 연기한 강노을은 시즌 2의 새로운 캐릭터다. 군인 출신 탈북민으로 북에 두고 온 어린 딸을 찾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다.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노을은 주차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명함을 받고 참가자가 아닌 진행요원으로 게임에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탈락이 곧 죽음이 되는 잔혹한 게임을 마주한 노을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딸을 만나기 위해 게임에 참여했지만 살인과 처벌을 반복하는 자신의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다. 결국 탈락자들의 장기를 빼돌리는 비도덕적 행동을 거부하고 부대장과 충돌을 일으킨다.

단순히 딸을 찾기 위해 게임에 참

여했던 노을이 점차 윤리적 문제를 동반하는 것에 의문이 들자 박규영은 “참가자로든 진행요원으로든 그 게임에 참가한다는 자체가 모든 걸 뒤로 하고 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노을은 한 번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노을이 생각하기에 (장기 밀매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에 정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게임에 참가해서 그걸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의 딸을 한 번 더 찾아보겠다, 그게 아니면 정말 죽겠다는 각오를 가진 것 같았어요.”

두 번의 오디션을 거쳐 작품에 합류하게 된 박규영은 자신이 노을 역을 맡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발체 대본을 가지고 오디션을 봐서 정보가 없었는데 캐스팅이 된 후 대본을 보니 진행요원이었다”며 “그동안 설명된 적 없었던 핑크가드의 정서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을이라는 캐릭터명이 마음에 깊이가 박혀서 다른 역할을 상상해 보지 못했다

고 했다. 박규영은 “노을이라는 이름이 그냥 좋았다. 나중에 시청자들이 (시즌1의) 강새벽, (시즌2의) 강노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뭔가 삶의 희망을 이야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2016년 데뷔한 박규영은 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수상한 파트너’,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OTT 콘텐츠에 도전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와 ‘셀러브리티’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 ‘오징어게임 2’에 이어 시즌 3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박규영은 “그동안 뒤도 안 돌아보



고 전력 질주를 하며 살아온 것 같다”며 “처음으로 이렇게 숨 쉴 시간이 생겼다. 올해는 숨도 쉬면서 뒤도 돌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좋은 작품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잘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징어게임 시즌3’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에게 힌트를 부탁하자 그는 “노을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일 것 같다”며 귀띔했다. “시즌 3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으실 거예요.”



“감춰진 ‘핑크가드’ 이야기할 수 있어 유의미해”  
“시즌3에 흥미로운 게임 나와, 꼭 기다려주길”





# 이세영·나인우의 달달할 로맨스 ‘모텔 캘리포니아’



## 첫사랑과 재회하며 겪는 이야기...심윤서 작가 원작 MBC 로코퀸 이세영, 지강희 역으로 3연속 안타 도전

12년 전 도망친 고향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 두 연인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MBC TV 새 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가 오는 10일 베일을 벗는다.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모텔 캘리포니아’ 제작발표회에는 김형민 PD를 비롯해 배우 이세영, 나인우, 최민수, 김태형, 최희진이 참석했다.

‘모텔 캘리포니아’는 시골 모텔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인공 지강희가 12년 전 도망친 고향에서 첫사랑 천연수와 재회하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다. 심윤서 작가의 소설 ‘홈, 비터 홈’이 원작이다. 평범하지 않은 배경과 혼혈 외모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지강희 역은 이세영이, 강희와 첫사랑에 빠지는 천연수 역은 나인우가 맡았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이세영은 “MBC 드라마 새해 포문을 여는 작품이 ‘모텔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평상시보다 더 떨리고 긴장도 된다”며 “더울 때 겨울옷을 입고 반년 동안 열심히 촬영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설 원작을 읽고 강희라는 인물이 비슷한 지점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어렸을 때 성장 과정부터 있었던 결핍,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가 과연 커서 어떻게 자랐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다. 고민하지 않고 작품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작을 읽었을 때 ‘건빵 아저씨’ 이야기가 좋았다”며 “사회 초년생 강희의 모습이 사람 사는 이야기, 어느 곳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시청자분들께서 힐링 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세영은 ‘옷소매 붉은 끝동’(2021), ‘열녀박씨 계약결혼뎐’(2023)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MBC 로코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는 올해 MBC 첫 금토드라마를 책임지게 됐다.

이세영은 “MBC여서 한다는 건 선택지엔 없었는데 MBC와 인연이 많은 것 같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출

연했던 작품도 MBC였고 MBC 식당 밥이 제일 맛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국 3사 중에 가장 느낌론 가까운 방송국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에도 함께해 감사하다”며 “(최근) 드라마가 많이 무산되기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작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2024)와 ‘지금 거신 전화는’(2024)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후속작으로서의 부담감에 대해 “흥행을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작품만 캐릭터만 생각했었다. 우리 작품은 우리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과 호흡을 맞추는 나인우는 12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강희로 인해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수의사 천연수를 연기한다. 나인우를 ‘모텔 캘리포니아’ 후속작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온전히 캐릭터로서 살아온 삶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재밌게 다가와서 열심히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연수 역에) 제 모습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었다”며 “제작사나 방송국에서 ‘너의 모습을 섞어서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다. 예쁘게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

였다. 이에 이세영은 “(나인우는) 정말 섬세하다. 멜로 연기할때도 눈빛이나 눈이 너무 예쁘다. 송아지 같은 눈”이라고 칭찬했다.

최민수는 강희의 아버지 지춘필을 연기한다. 춘필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사법고시 대신 임신한 여자친구 수지(지수원)의 손을 잡고 들어와 가업이던 여관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최민수는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다른 부분은 리허설을 안 했다는 점”이라며 “한 번 연습해서 자기 자신이 익숙해진 것까지도 배제한다. 나를 포함해 배우들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 모습으로 나와줬다. 나 역시도 연기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민 PD는 “최민수 선배님이 어느날 촬영장에서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하루종일 기타를 치고 계셨다”며 “로맨티스트 지춘필과 똑같은 실제 모습”이라고 언급했고 최민수는 “원래 사고뭉치”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무료배송**



이스라엘 최고의 엑스트라 버진  
**야엘 올리브 오일**

<고객감사 신년맞이 세일>  
**\$90 → \$40~80**



**무료배송**



500g 구입 시  
야엘 사향 공진단 10환 무료 증정  
**야엘 녹용 경옥고**

<신년맞이 이벤트>  
**\$400**



**무료배송**



\$100 이상 구매시  
수분 진정 크림 무료 증정 (\$60 상당)  
**조에 스템셀 크림 + EGF**

<신년맞이 이벤트>  
**\$120**



**무료배송**



야엘 사향 공진단  
사향 + 흑삼

공진단 구매시  
야엘 올리브 오일  
무료 증정

2박스 구입시 1박스무료(2+1)  
**야엘 사향 공진단**

<신년맞이 이벤트>  
**\$250~1080**



**무료배송**



1박스 (68g\*12개입)-레귤러  
**제주 딱새우 컵라면**

<신년맞이 세일>  
**\$32.50**



**무료배송**



1박스 (68g\*12개입)-블랙  
**제주 딱새우 컵라면**

<신년맞이 세일>  
**\$32.50**



**무료배송**



1박스 (68g\*12개입)-메운맛  
**제주 딱새우 컵라면**

<신년맞이 세일>  
**\$32.50**



**무료배송**



GRIN MOOD, 세레모니얼 등급  
100% USDA 유기농  
**디카페인 말차 파우더**

<신년맞이 세일>  
**\$29.95 → \$25**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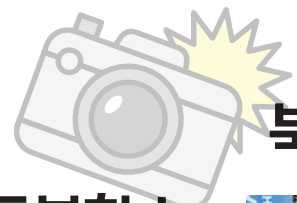


꿀잠 그래핀볼  
**경추베개**

<신년맞이 세일>  
**\$59.99 → \$39.99**







## 북적대는 사람물결의 서울 명동거리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12월 30일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한 조문객이 엎드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한국 서울 명동 한복판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 나이는 또 나만 먹지



배우 이시우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4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안중근으로 돌아온 현빈



배우 현빈이 영화 '하얼빈'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 미술 시장에서 과거의 갤러리의 역할을 이어받은 아트 쇼에 대하여

칼럼을 쓰고 있는 지금은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2일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전쟁과 함께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이 극도로 힘들어지게 되면 문화 예술계가 가장 먼저 그 영향력에 빠져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삶이 어려워질수록 갤러리가 무너지지만 숫자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예술가들이 생겨나고 활동합니다. 저는 어려운 삶에서 충격을 받은 심리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미술 시장은 갤러리를 통해서 활력을 얻었고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미술 시장은 아트 쇼나 아트 페어로 불리는 전시 공간을 통해서 활력을 얻습니다. 과거에 갤러리를 통해서 활력을 얻던 미술시장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침체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갤러리들이나 예술가 그룹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대한 아트 쇼의 세계가 탄생되었습니다. 아트 쇼의 역할로 인하여 약 2년 전까지 현대의 미술 시장은 “홀어지면 죽고 몽치면 산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트 쇼 업체들은 국제적으로 모인 갤러리들이나 예술가 집단들과 함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화려한 판매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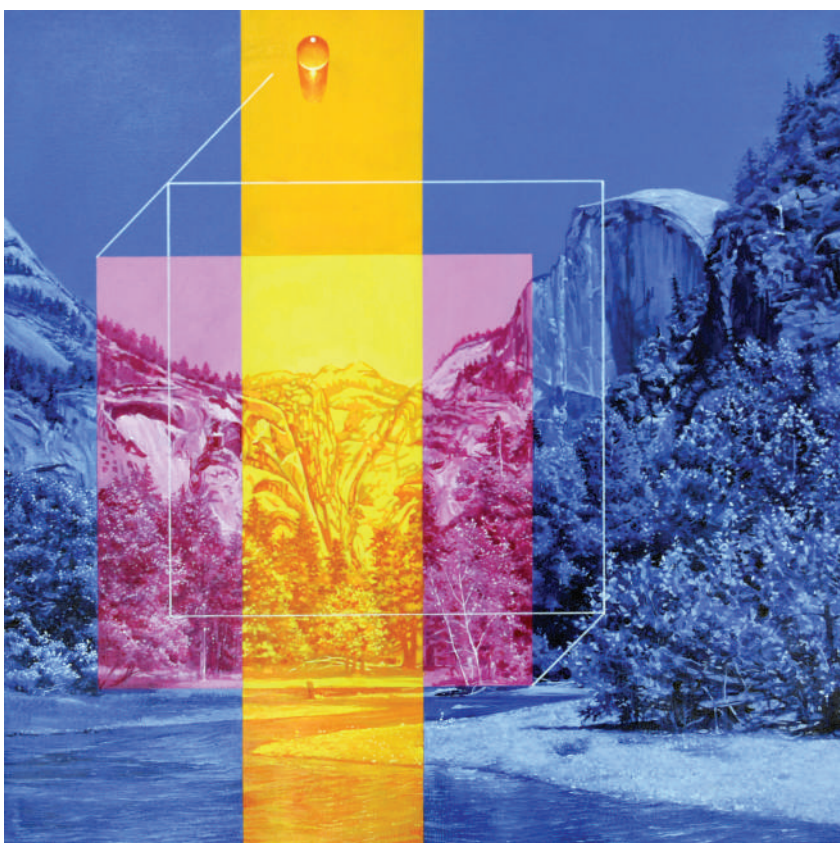
여기에서 저는 국제적인 아트 쇼가 자리를 잡는 한 단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거대한 아

트 프로젝트가 준비되면 규모가 큰 아트 쇼 업체들이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국가나 지역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적인 아트 쇼들을 ‘비엔날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명도가 있는 아트 쇼조차도 참가한 비용에 비하여 판매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025년 세계의 흐름이 회복되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에 있었던 레드 닷 마이애미 아트 페어 참여에 이어서 2025년 1월 22일에서 26일 사이에는 팜 비치 아트 쇼에 참여하게 됩니다. 출품 작품 수는 5점입니다. 그런데 팜 비치 아트 쇼는 그렉 오스틴(Greg Austin)이라는 과거 풋볼계의 슈퍼스타가 주관하는 어린이 재단(Athletes for Life Foundation)과 함께 합니다.

어린이 재단 대표인 그렉 오스틴과 팜 비치 큐레이터인 브랜다 리는 저의 작품 5점을 선정했습니다. EK Gallery와 저는 일상의 삶에서나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팜 비치 아트 쇼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팜 비치 아트 쇼의 Athletes for Life Foundation에서 구매한 작품에는 100%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작품을 구입하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텍스 리턴을 받는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럼을 쓰고 있는 Paul Art Lee는 목사이며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Tel : 669. 222. 0203 / Instagram : paulartlee



# 이번 시즌 스키 여행은 어디로?



겨울 스키시즌이 되면 스키 여행을 많이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The Greatest Snow On Earth” 유타(Utah)입니다.

스키시즌 시작이 벌써 2달째로 접어 듭니다. 이번 24-25 시즌에는 예상 밖으로 눈이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크 타호나 유타, 콜로라도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이 되면 스키 여행을 많이 들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 대답은 “The Greatest Snow On Earth” 라고 불리는 유타(Utah)입니다.

스키어라고 하면 눈이 얼마나 좋은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 지구에 최고의 눈 컨디션을 자랑하는 곳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유타에는 15개의 스키리조트가 있습니다.

2002년도 동계 올림픽 후에도 최고의 교통 시설과 숙박 시설을 자랑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034년에 다시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국제 공항에서 약 1시간이면 어느 스키장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Park City, Deer Valley, Snowbird, Alta, Brighton, Solitude, Snow Basin, Powder Mountain, 등이 있습니다.

유타는 일년에 약 200일 동안 화창한 날을 가지고 있으며 일년에 500 인치의 눈이 내립니다.

유타 하면 유명한 국립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교통 수단도 잘 되어있어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스키장 까지 갈수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저렴한 숙박 시설도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본 스키 여행 중에 유

타가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미스키클럽에서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까지 한달간 6곳의 스키장을 다니면서 스키를



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어느 스키장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스키를 안타시는 분들에게도 가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타의 몇 군데 스키장을 소개한다면 Alta는 미국에서 최고의 눈질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유일하게 스노우 보드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보자나 중급자에게 알맞은 슬로프가 많이 있습니다

Snowbird는 미국에서 제일 큰 Tram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키를 타지 않는 분들도 11000 Ft에 멋진 식당에서 유타 최고의 눈 산맥을 관람하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처음 올라가면 첫 번째로 와! 하는 함성이 저절로 나오는 Park City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약 7000에이커에 웅장함을 자랑하는 스키장이기도 합니다.

Deer Valley는 미국 스키어라고 하면 꼭 한번씩 가고 싶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온가족이 함께 스키를 즐기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최고의 호텔과 음식 등 서비스를 자랑하며 특히 이곳에서는 매년 월드컵 모글 경기가 열리면 한국의 선수들이 와서 일주일간 훈련과 시합을 하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Deer Valley는 초중급자들이 즐기기에 좋은 슬로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하여 많은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며 산 이곳 저곳에 호텔과 고급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스키를 타면서 멋진 휴식 시간을 지내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Snow Basin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운치 있고 멋진 풍광과 랫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키를 타고 산에 오르면 너도나도 사진기로 기념 촬영을 할 정도

교통 체증을 피하여 1시간 일찍 스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Brighton은 로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밤 스키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곳을 좋아 합니다. 저희 클럽 회원들과 함께 훈련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Tree skiing, Steep Skiing, Mogul Skiing은 초보자 훈련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느 스키장 보다 높아서 눈의 질이 파우더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차도 역시 좋습니다.

이곳의 Tree skiing을 즐기다 보면 다른 곳을 안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아스펜의 나무 사이로 파우더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한쪽은 소나무와 전나무들로 가득한 곳에서 파우더 스키를 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것일까요.

Powder Mountain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이곳은 파우더로 명물이 나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설이나 랫지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한번 찾으신 분들은 이곳을 잊어 버릴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파우더가



로 설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고 스키장 분위기는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으며 두 곳의 곤돌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Solitude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제일 가까운 곳 약 30분이며 대중 교통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유럽풍 스타일의 스키장입니다. 시내에서 가까워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설질도 아주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성비가 좋은 스키장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느 스키장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열어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손님을 많이 받지 않고 하루에 일일 패스를 1500개의 티켓만 팝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100% 내츨러 스노우입니다. 파우더를 즐기시는 분들은 꼭 이곳을 찾아 옵니다.

주변의 경치는 말할 수 없는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 스키장입니다.

유타는 로스엔젤레스에서 700마일 이동 거리이며 비행기로는 2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스키 여행을 멋지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Tel : 562-544-3697  
 parkskifamily@gmail.com  
 카톡 : sandyapple668





# H매거진 특별기획

##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우수업체

집 용자는 저희가 제일 잘 합니다!  
**‘마지막’ 채용자 기회!**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 CENTRAL FINANCIAL GROUP INC  
**나라** (213) 388-5600

**조선갈비**  
 Chosun Galbee Restaurant

한결같은 맛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제영 변호사**

무료 상담 문의  
 213-380-0777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충북제천에서 온  
 동강청정 **다슬기**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MUSIC PLAZA**

온라인 주문  
**musicplaza.com**

**여기요**  
 Premium Korean Restaurant

☎ 213) 378 0333  
 📍 3450 W 6th st #105, LA, CA 90020

**Dios**  
 massage chair

보고, 듣고, 느끼는! 카후나!  
**세계최초 80 시 마사지체어**  
 KAHUNA CHAIR

**T. 855-646-9500**

**코러스 투어** 크루즈 여행은  
 전문 여행사에서 예약하세요!

☎ **213.746.1000**

**새로운 도약! 원스탑 쇼핑공간**

**홈쇼핑 월드**  
 HOME SHOPPING WORLD

**www.hswus.com**  
 LA 지점(8가+세라노) | OC 지점(비치+앨번)

[www.centurydayandnightspa.com](http://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렌셔  
**323-954-1020**

**Kheir Clinic**  
 이웃케어클리닉  
 Clínica Kheir

☎ **213-235-2800**  
 📍 3671 W. 6th St. Ste A,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킹슬리 형제갈비 건너편)

**해장촌** 구이  
 haejangchon.com

**무제한 구이 전문**  
 해장국 · 양푼 열무비빔밥 · 쌈밥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목 11am-12am 금-토 11am-2am \*일요일은 쉽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 검안의 -  
**미셸 김**  
 Michelle Kim O.D.

**금강안경 검안과**  
 LA점: 213.384.1001 / OC점: 714.530.1001

**MW**  
**중앙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Admissions Coordinator Director of Social Services  
 E-mail: tinah@midwilshirehcc.com  
 Cell: (213) 483-9921 Fax: (213) 483-3606  
 676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57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전미주에서 보는 시사, 경제, 명칼럼 - H매거진 창간 1주년



# 당신의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 소득혁명

브라이언 페이지(지은이), 김정혜(옮긴이)  
| 서삼독

직장인이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의 한계를 체감한다. 초기엔 연봉이 오르며 희망을 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냉혹해진다.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고민은 더 깊어진다.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아이들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금은 어깨를 무겁게 한다. 은퇴 후 노후 자금도 큰 걱정이다.

소득은 제한적인데 지출은 끊임없이 늘어나니 미래가 불안하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연봉이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진다. 이런 현실적 고민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안고 사는 무거운 짐이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된 지금, 근로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모두를 짓누른다. 브라이언 페이지의 <소득혁명>은 이런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브라이언 페이지는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나의 아버지는 수십 년간 영혼을 박살내는 일에 매여 살았으나 여전히 가난했고, 일흔이 넘어서는 흑색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은퇴는 했으나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것이 내가 책을 쓰게 된 이유다.” 그는 생계를 위해 끔찍이 싫은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삶에 의문을 갖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삶”을 찾아 나섰다. 그의 결론은 ‘자동 소득’이었다. 그는 회사에 다니며 자신만의 자동 소득을 설계해갔고, 준비가 끝나자 스스로 직장을 해고한다. 그렇게 퇴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의 연 소득은 수백만 달러가 되었고 3년 후엔 수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는 이른바 사짜 직업이나 창업가에 대해 고개를 내젓는다. “진정한 부는 돈만이 아니다. ‘돈과 시간의 자유’다. 내가 매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짜 직업이나 창업가의 삶을 원하지 않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브라이언은 빠르게 부자가 될 것을 권하며, 천천히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세간의 조언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생각해 보라. 30~40년 후에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인가. 당신의 람보르기니에 노인용 보행기를 싣고 다닐 셈인가?” 이에 브라이언은 3년에서 5년 뒤, 자동 소득을 세팅하여 일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말고,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지름길 위에 빠르게 따라 올라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브라이언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제목은 ‘내가 퇴사 47일 만에 자동 소득으로 백만장자가 된 뒤 깨달은 것’이었다.

하나, 돈 때문에 일을 하러 갈 필요가 없다. 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다. 셋, 의지와 에너지는 고갈된다. 결국 우리를 목적지에 데리고 가는 것은 습관이다. 넷, 진정한 부는 시간 더하기 돈, 아니 시간 더하기 현금흐름이다.

를 합친 단어로 자동 소득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을 일컫는다. 일단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또한 시간 부자다. 돈에 시간까지 넉넉한 이들은 원하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 갈 수 있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든 동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만큼 그곳에 머물 수 있다. 패시브프러너는 의사, 변호사 같은 일명 ‘사’자 직업을 가진 전통적인 고소득자가 아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을 운영하는 재계 거물도 아니다. 실리콘밸리 IT 스타트업의 창업자도, ‘억’ 소리 나는 연봉을 자랑하는 월스트리트 금융인도 아니다. 부모 잘 만난 금수저는 더더욱 아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자동 소득 창출의 달인이다. 통장에 딱딱딱 돈이 꽂히니 이들의 삶은 무한한 시간으로 채워진다.

저자는 자동 소득을 어떻게 늘려갔을까.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고, 다음으로는 임대업체를 꾸렸고, 그다음으로는 디지털 마케터가 되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상업적인 부동산을 파트너로 하고,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제 나는 수십 개의 PIVs를 갖고 있다.” 그는 이 책 <소득혁명>에 자신의 성공 과정

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다. 돈과 시간, 두 가지 풍요를 모두 누리는 삶을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많은 돈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금 흐름으로 인생을 지켜줄 책을 찾는다면 이 책만큼 적임이 없을 거라 확신한다. 당장 일 년 뒤, 아니 몇 달 뒤가 불안하다면 당장 이 책을 집어 들기를 권한다. 브라이언 페이지의 가감 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 투명한 실전 전략 등에 인생을 바꿀 용기와 실행력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은 근로소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극단적인 조언이 아니다. 현재의 근로소득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자동 소득을 만들어가는 실용적인 방법이 담겨있다. 특히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득 창출 자산 목록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당신의 삶이 불안하다면, 지금 이 책을 집어 들기 바란다. 3~5년 후면 당신도 근로소득과 자동소득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을 시간이다.



직장인이자라면 누구나 소득 한계를 체감  
초기엔 연봉이 오르며 희망을 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냉혹해진다  
'소득혁명'은 이런 고민에 명쾌한 해답 제시

그의 대답은 진솔하고, 담백하고, 놀라웠다. 저자 역시 평범한 회사원에서 시작했기에 공감력이 컸다. 매일 아침 알람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되다니, ‘나는 뭘 해야 하지’ 머리 터지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 많이 버는 것이 아닌 반복적 현금흐름에 집중하라니,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경험의 결과값이었다.

브라이언 페이지는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은 자산가들을 신형 부자라 칭한다. 고정적 비근로 소득원이 있다는 점에서 ‘패시브프러너(passivepreneur)’라 부른다. 자동 소득을 뜻하는 ‘passive income’과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preneur’

과 노하우를 전부 풀어놓았다. 말 그대로 전부. 그는 AtoZ를 차근차근 안내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장을 영원히 해고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월 소득을 계산하는 것. 그런 다음 이 목표액을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창조’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고, 마지막으로 ‘자동 소득 자산’을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 창출 자산 목록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제시했다. 예상하지 못한 온오프 자산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소득혁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을



알라딘서점 LA점  
송명국이사



# 상담 전화 (213)739-2877 [www.askjiyun.com](http://www.askjiyun.com) (1월 14일 ~ 1월 27일)



지윤철학원



**쥐띠** - 밝고 환하게 웃는  
**운수** :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금전** :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애정** :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피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 20, 23일 길일. 14, 16, 22, 25일 주의.



**말띠** - 미리 대비를 해두는  
**운수** : 해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 :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4, 17, 24, 26일 길일. 16, 19, 20, 22일 주의.



**소띠** -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운수** :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 손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애정** :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6, 19, 20, 24일 길일. 14, 17, 23, 26일 주의.



**양띠** -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운수** :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금전** :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정** :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8, 22, 24, 25일 길일. 17, 19, 20, 21일 주의.



**범띠** -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수** :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 :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 야끼고 야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7, 22, 23, 25일 길일. 15, 18, 21, 24일 주의.



**원숭이띠** -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운수** :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 뭔가 초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애정** :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04, 92, 80, 68, 56, 44년생은 16, 19, 20, 23일 길일. 14, 18, 21, 24일 주의.



**토끼띠** -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운수** :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금전** :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애정** :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4, 18, 22, 26일 길일. 16, 19, 25, 27일 주의.



**닭띠** - 크게 기지개를 피고  
**운수** :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금전** : 자산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6, 20, 24일 길일. 17, 19, 22, 25일 주의.



**용띠** - 훌훌 털어버려야  
**운수** :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금전** : 돈에 연연하다가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애정** :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5, 19, 23, 24일 길일. 17, 18, 20, 26일 주의.



**개띠** - 냉철하게 살펴보고  
**운수** : 귀가 아파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 : 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22, 25, 27일 길일. 14, 20, 23, 26일 주의.



**뱀띠** -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운수** :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금전** :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듭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4, 16, 20, 25일 길일. 15, 18, 21, 24일 주의.



**돼지띠** -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운수** :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전** :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복 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9, 22, 26일 길일. 15, 21, 24, 2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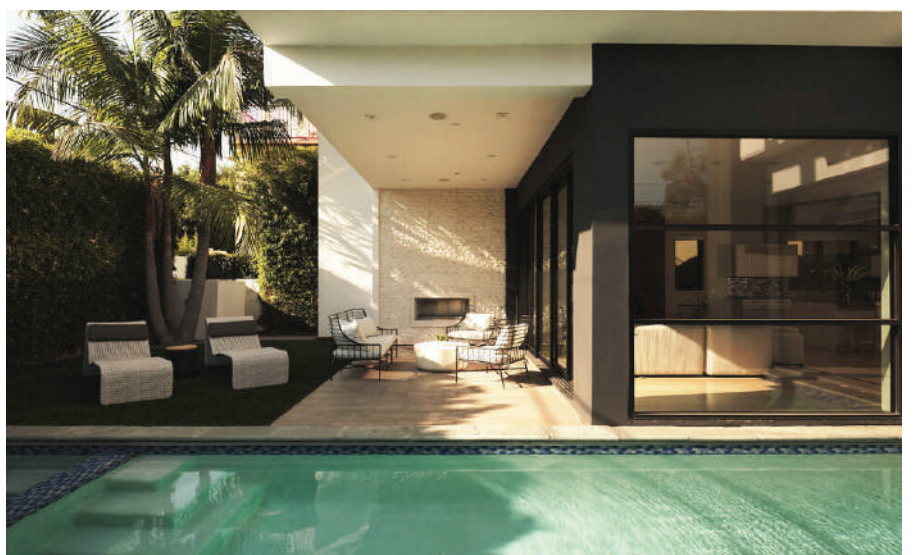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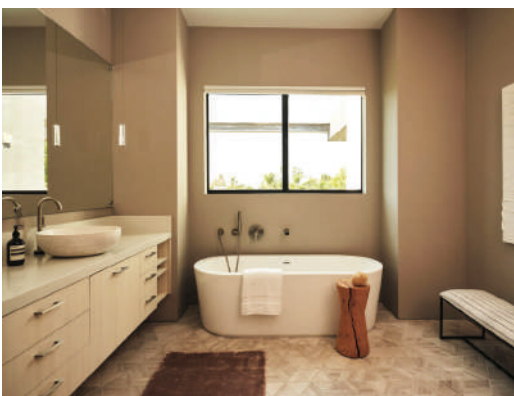
# 베버리힐스

베버리 센터 근처 LUXURY HOUSE \$3,850,000



방 5개, 화장실 5개 + 파우더 룸이 있습니다.  
 2013년 지은 건물로 LOT 6600 SF. 건평 4363 SF입니다.  
 아주 좋은동네에 리모델링 잘 되어있는 멋진 하우스 입니다.  
 관리하기 쉬운 예쁜 정원, 수영장, Double Gate.  
 집하고 직접 연결된 차고 등등.. 안전하고 살기 편한 구조입니다.  
 집안 전체 SMART HOME System 이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한인타운 가까우면서 안전한 동네입니다.

Helen Haeran Lee Phone: 213-272-3545  
 CalDRE#: 01331741 | helenlee3545@yahoo.com





# 용자 나라

주택구입 / 재용자 / CASH OUT / Home Equity Line of Credit 전문

## 집 용자는 저희가 제일 잘 합니다!

용자가 정말 쉽더군요.

## Loan Fee 안받습니다

# ‘마지막’ 재용자 기회!

**이자가  
너무 좋아졌어요**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주택구입 재용자

Cash Out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용자는 다 됩니다.

**비상자금**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Home Equity Line of Credit

\$500,000 까지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용자는 다 됩니다.

**집만  
가지고 있는데**

(급한 Hard Money)  
7일 내 펀딩

No Credit Bad Credit

다른 곳에서 용자 거부된 분  
(외국인도 한국에서 여행온 분도)  
용자는 다 됩니다.

# 용자 나라

**CENTRAL FINANCIAL GROUP INC**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213) 388-5600**

Email: ak4989@gmail.com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nd Office: 305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NMLS#2318997